metro®

메트로 2014년 4월 14일 월요일 제2955호 www.metroseoul.co.kr

개인정보 '전방위 유출' 비상

올 초 카드3사 1억건 시작으로 줄줄이 새 없다던 2차 피해까지 나와 "정부 못 믿겠다"

개인 정보가 '전방위 유출'이라는 벼랑 끝에 몰렸다.

올해 초 KB국민·롯데·NH농협 등 카드3사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은 1억 건이다. 이를 시작으로 외부로 나간 2차 유출, 보험사의 1만 건, 씨티·SC은행 5만 건, 신한·국민·농협카드 등 POS단말기 해킹 20만 건 유출까지 불과 3개월 여만에 전방위적으로 개인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권에서 유출된 정보가 2차 피해로 이어진 사례가 등장해 국민들의 불안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 1월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정부가 단언했던 "2차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무색해졌다.

◆문자·단말기 포인트 등 다양화

수법도 다양해졌다. 최근 검거된 단말기 해킹의 주범인 이모(36)씨 등은 커피전문점과 식당 등에 설치된 POS 단말기를 통해 관리업체의 서버에 침투, 신용카드 정보를 유출했다.

그는 커피 전문점 등에서 포인트 카드를 현금처럼 사용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 비밀번호가 대개 신용카드의 비밀번호와 같다는 점을 노렸다.

이렇게 해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무려 20만 건. 이들은 신용카드를 복제한 뒤 포인트 카드의 비밀번호를 하나씩 대입했고 두 카드의 비밀번호가 같은 신용카드 149장을 찾아내 현금 1억2000만 원을 빼냈다.

특히 빵집이나 음식점 등 전국에 36만대나 깔려있는 POS 단말기에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선제적 대응을 위해 모든 카드사들이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가동하고 부정 사용 적발 시 곧바로 경찰에 통보하도록 지시했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종합대책' 2차 회의를 열고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마케팅 활용 동의가 없는 고객에게는 문자나 전화를 하지 않는 비대면영업 가이드라인과 고객정보수집 동의서를 개편키로 했다.

또 카드 가맹점의 단말기를 보안성이 높은 집적회로(IC)단말기로 전환하고 해킹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높은 POS시스템은 보조 IC리더기 설치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IC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은행과 카드업계에서도 재발 방지와 정보 보호에 한 목소리를 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포스단말기 유출과 관련해 사고 가맹점의 정보유출 고객에 대해 지난 1월 소비자보호 사전안내를 통해 재발급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며 "기존 조치 완료 고객을 제외한 나머지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카드 재발급 안내 및 24시간 FDS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신의 눈초리를 쉽사리 걷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간 금융권이 소리 높였던 대책 마련 발언에도 불구하고 잇따라 터져나오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국민의 피로감과 신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

◆'하나의 문만 노리지 않아'

결국 갈수록 치밀하고 다양해져 가는 수법을 막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응과 소비자 스스로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도둑은 하나의 문만 따고 들어오지 않는다. 정보보안도 하나가 아닌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조규민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산업단장은 지난 9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1분기 산업콘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최근 지원이 종료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XP 버전의 경우, 전국 현금인출기(ATM)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ATM기기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점에서 정보보안에 대한 취약점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3면에 계속>

'갤럭시 S5' 구매행렬 삼성전자는 '갤럭시 S5'가 전작인 '갤럭시 S4'의 두 배가 넘는 125개 국가에서 동시 판매를 개시하면서, 전작을 상회하는 인기와 함께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순항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프랑스 파리 마들렌에서 열린 현지 행사에 참석한 파리 시민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 있다. <관련기사 8면>

/삼성전자 제공

어린이집 절반 중금속 '노출'

설치된 지 5년이 지난 어린이 놀이시설 등 어린이 활동 공간의 절반이 중금속과 기생충 등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2009년 3월 22일 이전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 공간 203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환경안전진단을 벌인 결과 894곳(43.9%)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납·수은·카드뮴·6가 크롬의 합이 0.1% 이하)을 초과한 시설은 726곳이었다. 기준 초과 시설 중 104곳(14.3%)은 페인트를 다시 칠할 때 기존 페인트를 벗기지 않고 덧칠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 놀이터 681곳 중 42곳에서는 기생충과 알이 검출됐다. 실외 공간 1000곳 중 88곳에서는 사용 금지된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방부제(CCA)를 사용한 목재가 쓰였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사육신 추모제 13일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 사육신공원 의절사에서 열린 사육신추모 558주년 춘향제에서 사육신선양회 회원들이 추모제를 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맞짱’ 대진표 속속 확정

새누리당 세종시장 유한식·울산 김기현 결정

6·4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여야의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속속 확정됐다.

새누리당은 12일 울산광역시와 세종시장 후보 경선을 실시해 김기현 의원과 유한식 현 시장을 각각 선출했다. 김기현 의원은 대의원과 당원 등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날 선거인단 투표에서 51.98%(1361표)를 얻어 강길부 의원(48.02%, 1251표)을 따돌렸다.

또 유 시장은 세종시민체육관에서 열린 경선에서 66.2%(676표)를 얻어 최민호(345표) 전 행정중심도시건설청장을 누르고 승리했다.

13일 현재 새누리당은 인천시장(유정복), 제주지사(원희룡), 울산시장(김기현), 세종시장(유한식), 경북지사(김관용), 충북지사(윤진식) 후보가 결정됐고, 호남에서는 광주시장(이정재), 전남지사(이중효), 전북지사(박철곤) 후보가 최고위 의결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후보는 30일 결정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시장(박원순), 대구시장(김부겸), 인천시장(송영길), 대전시장(권선택), 울산시장(이상범), 강원지사(최문순), 충남지사(안희정), 충북지사(이시종), 경북지사(오중기), 세종시장(이춘희) 후보가 본선무대에 각각 진출한다.

지금까지 이로써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새누리당은 9곳, 새정치민주연합은 10곳의 후보를 확정했다.

서울시장 선거판세는 새누리당의 후보경선이 끝나고 박 시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5월 초부터 구체적인 윤곽이 잡히며 우열이 가려질 전망이다.

인천은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현 시장과 새누리당의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 접전을 펼치고 있다.

충청과 강원의 선거판은 안희정 충남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 등 ‘현역 프리미엄’을 중심으로 한 인물론으로 흘러갈 조짐도 보이고 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뚱뚱한 김정은 대사증후군 없는 듯”

충북도립대 목소리로 분석

북한 김정은(사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음성을 통해 건강상태를 분석한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충북도립대 생체신호분석실 조동욱(56·전자정보계열) 교수는 13일 김정은의 목소리를 통해 건강상태를 진단한 결과, 심장이나 신장질환의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뚱뚱한 사람에게 주로 나타나는 대사증후군은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등을 동반해 신장과 심장기능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구는 심장질환이 있을 경우 혓소리(설음)가 부정확해지고, 신장질환은 입술소리(순음)를 어눌하게 한다는 한의학의 ‘청진 이론’을 토대로 진행됐다. 조 교수는 지난해와 올해 김정은의 신년사에 담긴 ‘친애하는 동지들’ 속 혓소리와 ‘인민군 장병’ 속 입술소리 샘플을 끄집어 내 분석한 결과, 주파수 대역폭이 각각 209.23~266.06Hz, 195.76~214.96Hz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같은 방식으로 심장질환자(60명)와 신장질환자(50명)의 음성을 분석했을 때 주파수 대역폭은 평균 800Hz 안팎으로 나왔다. 주파수 대역폭은 소리의 규칙성이 없을 때 커지는데, 이는 부정확한 발음을 의미한다.

/김민준기자

서울시장 4인 후보 긴장감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9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이혜훈 최고위원,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여성취업 교육생 모집

서울시는 시내 22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통해 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달 내 교육생을 모집한다.

강북·영등포·중랑구 등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회계, 경리 등 사무직종에 도전하고자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회계사무원’ 과정을 개설한다.

서대문구에서는 ‘e-DIY인테리어 디자인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해 목공예를 통한 디자인과 제작법을 알려준다.

송파구에서는 ‘마이스(MICE)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실시한다.

은평구는 ‘병원원무과 행정전담인력 양성과정’을 통해 원무과의 행정 업무, CS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과정을 마련했다.

이밖에 국제무역사·펀드투자상담사·조경기능사 등의 자격증 취득과정이 있으며 장애여성 취업을 위한 ‘스타일리쯤 아티스트 양성과정’과 ‘사무행정도우미 양성과정’도 준비됐다.

軍 계급별 정년 1~3년 연장된다

상사만 53세 현행 유지

직업 군인의 계급별 정년이 1~3년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장기복무 군인은 ‘20년 근무’를 보장받아 누구나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 소식통은 13일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교의 계급 정년은 대위가 43세에서 45세로, 소령이 45세에서 48세로, 중령이 53세에서 55세로, 대령이 56세에서 57세로 각각 연장된다. 부사관은 원사와 준위가 55세에서 57세로 계급 정년이 늘어나지만, 상사는 53세가 유지된다.

이 소식통은 “장기복무 부사관은 중사는 상사로 자동 진급되기 때문에 상사의 정년을 늘리면 상사가 너무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의 직업군인 정년 연장 방안은 최근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고 육·해·공군별 공청회를 거쳐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대위와 소령의 계급 정년이 2~3년 늘어나면 직업군인은 누구나 20년 이상 복무를 보장받게 된다.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해야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전 계급에 걸친 군인 정년연장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김민준기자

아동학대 가해자 80% 부모

지난해 보고된 아동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이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새정치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에 공식 보고된 아동학대는 6796건으로 1년 전보다 393건이 늘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친부모 등 ‘부모’가 80.3%를 차지했다.

부모 가해자를 세분하면 친부(41.1%)가 친모(35.1%)보다 많고, 계모(2.1%)가 계부(1.6%)보다는 약간 앞섰다. 아동복지시설과 보육시설 가해자의 비율은 각각 5.3%와 3.0%로 집계됐다.

학대 장소는 ‘피해아동 가정’이 79.6%로 가장 많고, 아동복지시설(5.6%)과 어린이집(3.4%) 순으로 나타나 가해자의 순서와 일치했다.

/윤다혜기자 ydh@

용산구, 모래 놀이터 소독

서울시 용산구는 지역 내 모래놀이터가 있는 새나라·삼각지·강변·응봉 등 공원 4개소를 대상으로 모래소독작업을 완료했다.

모래소독은 굳은 모래 펴주기, 모래 속 이물질 제거하기, 모래 속 살균·살충, 바닥고르기 순으로 진행됐다.

관악구, 발달장애 자립교육

서울 관악구가 17일부터 19~25세의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과제빵, 목공예 등 자립교육을 실시한다.

구는 ‘목공교실’과 ‘제과제빵교실’을 1, 2기로 나눠 진행하며 각각 25일과 다음달 2일까지 모집한다.

중랑구, 꽃나무 식재행사

서울시 중랑구 망우3동 주민들이 쾌적하고 푸른 마을을 만들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망우3동 주민들은 왕복 1.2㎞ 상상문화거리에 산수유 등 꽃나무를 식재하고 가로수 및 띠 녹지의 청소·잡초제거·물주기 등을 실시했다.

서울대공원에도 석면이…

서울시 공공건물 절반 넘는 1059곳 검출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사용 중인 건물 가운데 1급 발암물질 석면이 검출된 곳이 1059군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공원과 서울시립대학교와 같이 사람의 출입이 잦은 곳이 대거 포함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시 건물 2007곳 가운데 1059곳(53%)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환경부의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기준에 따라 6곳은 위해성 '중간', 1053곳은 위해성 '낮음' 평가를 받았다.

위해성 등급이 '중간'인 곳은 강서소방서 청사, 서울시청 남산청사, 서울대공원 야행동물관, 잠실올림픽주경기장, 서울애니메이션센터, 가락어린이집 등이다. '중간' 등급은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큰 상태로 원인을 제거하거나 필요하면 해당 지역을 출입 금지 또는 폐쇄해야 한다.

석면 위해성 판정을 받은 시설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드나드는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서울랜드로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 다수 발견됐다.

서울대공원은 조사 대상 건물 137곳 중 65곳(47%)에서 석면이 나왔다. 호주관 1층 관람통로 천장은 백석면 5%와 갈석면 6%를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고, 공원 내 화장실 17곳에서도 석면이 검출됐다.

서울랜드는 68곳 건물 중 42곳(62%)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서울시립대와 서울시어린이도서관, 서울시립상계직업전문학교, 10개 시립 청소년수련관 등 교육시설에서도 석면이 나왔다.

이 곳들은 '낮음' 평가를 받았지만, '낮음'이라도 자재가 손상되는 즉시 석면 가루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태국 아닙니다 13일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태-한 쏭크란 축제에서 태국 전통복장을 한 미녀들이 부처상에 물을 뿌리는 축수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내 학교시설 24% 30년 이상

서울지역 학교시설 10곳 중 2~3곳은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낡은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직속기관 건물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건물 3451동의 24.3%에 해당하는 840동이 1980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1970년 이전 지어진 건물이 332동(9.6%), 1971~1980년 지어진 건물은 508동(14.7%)이었다.

이 가운데 당장 개축 또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재난위험시설(A~E등급 중 D등급 이하)은 공립 6개교 11동, 사립 12개교 18동, 직속기관 1기관 2동 등 19개교 31동이었다.

나머지 5개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학생들이 낡은 건물을 계속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시교육청의 시설사업 예산은 2311억원으로 전체 예산 7조4391억원의 3.1%에 불과하다.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1.1%인 801억원이다. /윤다혜기자

덕수궁 돌담길 예술시장 13일 서울 중구 덕수궁 옆 정동길에서 열린 '덕수궁 돌담길 예술시장 공동체(돌예공)' 행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들이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공예품 등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수출했다는 다이아몬드가 고작 4억원

'CNK 주가조작' 오덕균 구속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에 수백억원대의 가치가 있다고 선전한 CNK 인터내셔널이 3년 넘도록 제대로 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카메룬에 머물다가 최근 자진 귀국한 CNK 인터내셔널 오덕균(48) 대표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상품화된 다이아몬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로 오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정모(54·여)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해 주가를 부양시키고 약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CNK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2100캐럿 수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마저도 시가 4억5000만원어치에 불과하고 상품화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윤다혜기자 ydh@

노트북 '와이브로 깡' 사기단 덜미

보조금 439억원 가로채

속칭 '와이브로 깡'으로 불법 대부업자와 이동통신 대리점 업주가 챙겨간 보조금이 43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12년 6월부터 이동통신 대리점과 대출모집책·무허가 대부업자·개인정보 판매상이 결탁한 '와이브로 깡' 사기조직을 집중 단속해 대리점 업주 김모(44)씨 등 17명을 구속기소하고 4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 말부터 1년 8개월 동안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시킨 뒤 무이자 할부 구매로 지급된 노트북을 저가에 내다파는 수법으로 통신사 두 곳에서 보조금 43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불법 유통된 노트북은 3만4982대에 달한다.

와이브로 개통에 적합한 소액대출자를 모으기 위한 '맞춤형' 개인정보 판매업자도 끼어들었다.

정모(36·여·구속기소)씨는 3870만건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대부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조건을 갖춘 소액대출 희망자를 추려 1건당 1만5000~2만원에 팔아 넘겼다.

이들은 노트북 값이 한꺼번에 들어오는데다 가입자가 실제 와이브로를 사용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다혜기자

안보공단, 강원동부원 개원

안전보건공단은 강릉시 교동에 소재한 정관빌딩에서 '강원동부지도원'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재해예방 활동에 나섰다.

이번 강원동부지도원이 개원함으로써 강릉시와 평창군 등 10개 시·군의 3만여개 사업장과 20만여명의 근로자가 적시에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덕성여대-코피온 업무협약

덕성여대는 교내 행정동에서 (사)코피온과 해외 자원봉사 파견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가선별,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현지 프로그램 진행 ▲해외봉사 선발자 사전교육 협력 ▲해외봉사를 위한 국내외 조직망 및 관련 정보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건보·서울시 건강증진 MOU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서울특별시·대한노인회서울특별시연합회는 11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상호 포괄적인 협력관계 수립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단체는 건강검진 참여율을 높이고, 흡연폐해 및 금연캠페인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금감원 소비자 주의보 발령…또 다시 '뒷북'

<1면에서 계속>

이와함께 조 단장은 "더 성장해야 하는 쪽은 인력에 대한 교육과 서비스 등의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스스로 정보를 챙기는 것도 필수다. 금감원은 최근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하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은 유선상으로 송금같은 금융거래나 통장, 카드 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거래정보 요구에 응하면 안된다"며 "은행에서도 '저금리 전환' 등을 유선이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지 않고 이러한 SMS 문자는 대출을 빙자한 사기일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해당 금융회사가 피해내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라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또는 금융회사의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휴대전화 내 주요자료 유출 등 스미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이버테러대응센터(182)등으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Корюшка. Один из символов Петербурга стал настольной игрой

В мае в сувенирных магазинах города на Неве появится новая игра «Невероятные приключения корюшки в Петербурге». Автор идеи – Лариса Павенко, художник – Юля Скрыгина.

Цитата

«Над созданием игры Юля работала семь месяцев».

관광명소 테마 '보드게임' 등장

metro Russia

러시아 페테르부르크를 테마로 한 보드게임이 등장했다.

페테르부르크 시내와 이삭 성당 등 관광 명소를 배경으로 보드 지도를 만들고 주사위를 굴려 말을 이동하는 이 게임은 페테르부르크의 작가 라리사 파벤코와 화가 율랴 스크리기나의 합작품이다.

파벤코는 "내가 페테르부르크를 테마로 한 보드게임 제작에 관한 아이디어를 내고 스크리기나가 아이디어를 디자인으로 표현했다. 오랜 시간 공들인 작품"이라며 보드게임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어 "이 게임은 최대 여섯명이 함께 할 수 있다"며 "주사위를 굴려 말을 움직이는 단순한 게임이지만 페테르부르크의 모습을 담고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숙한 게임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스크리기나는 "페테르부르크의 관광명소들을 사실적이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싶었다. 하지만 보드판의 면적이 한정돼 있어 네바강의 멋진 다리를 실감나게 표현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보드게임은 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많이 구입한다"며 "앞으로 페테르부르크를 상징하는 새로운 기념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고리 카라쇼프 기자·정리=조선미기자

佛 온라인 의약품 인기 시들

metro France

프랑스에서 온라인 의약품 구입에 대한 인기가 시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폽(ifop)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프랑스인 10명 중 1명만이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구입했다고 답했다. 인터넷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구매자들을 살펴보면 전문직(18&), 파리지엥(17%), 아이를 둔 가족(17%)이란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약세는 온라인 의약품 판매가 지난 2013년 1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이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도 작용했다.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 4000개의 의약품만 구입이 가능하며 주문 이후에도 약국을 거쳐 배달된다. 게다가 온라인 판매를 원하는 약사는 지역보건부와 프랑스약사협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알렉상드라 브레송 기자·정리=정주리 인턴기자

사우디 '펭귄춤' 열기 후끈

엄격한 이슬람교도 춤바람…남녀노소 '폴짝폴짝'

엄격한 '이슬람교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펭귄춤'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펭귄춤은 손을 잡고 나란히 서서 옆으로 그리고 앞뒤로 '폴짝폴짝' 뛰는 춤이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전통 복장을 입은 사우디아라비아 모녀가 펭귄춤을 추고 있는 동영상은 인터넷 조회수 180만 건을 넘어섰다.

펭귄춤은 지난해 말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 춤은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인기가 좋다.

일각에서는 펭귄춤이 동유럽의 전통 결혼식 춤, 미국의 호키포키 춤과 유사하다고 주장하지만 춤의 정확한 유래는 알려진 바 없다.

펭귄춤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남녀 구분이 엄격한 이슬람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혼성 댄스'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남성들이 칼을 차고 추는 전통 춤이 있다. 또한 여성들은 남성들이 없는 곳에서 머리를 흔들며 추는 전통 춤을 즐긴다.

함께 손을 잡은 채 '펭귄춤'을 추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남성들. /유튜브 동영상 캡처

반면 최근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펭귄춤은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다함께 추는 춤이다. 특히 익살스러운 동작 때문에 춤을 추는 사람들을 절로 미소짓게 만드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펭귄춤 열풍이 거세게 부는 이유다.

WSJ는 펭귄춤을 통해 외부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 춤이 특히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흥겨운 '물벼락 댄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코첼라밸리 뮤직·아트 페스티벌'에서 참가자들이 시원한 물을 맞으면서 '물벼락 댄스'를 선보이고 있다. /AFP 연합뉴스

美 쇠고기는 '금고기'

1987년 이후 최고가 가뭄 등 소사육 줄어

미국에서 쇠고기가 '금고기'가 됐다. 가뭄으로 소 사육이 줄고 중국과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출 요구가 급증한 탓이다.

1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내 쇠고기 가격은 1987년 이후 가장 높게 치솟았다. 지난 2월 쇠고기 값은 전달보다 4분의 1 가까이 오른 1파운드(0.45kg)당 5.28 달러를 기록했다.

소 주산지인 미국 남서부와 중서부 지역에 몇년 동안 가뭄이 이어지면서 미국 내 소 사육두수는 1951년 수준으로 떨어졌다.

쇠고기 가격이 크게 오르자 소비자들은 닭과 생선 등 '대체 식품'을 구매하고 있다. 한 여성은 "고깃값이 올라 더는 정육점에서 스테이크용 고기를 사지 않는다"며 "햄버거도 쇠고기 대신 닭이나 생선, 돼지고기가 들어간 것을 고른다"고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식당들도 발빠르게 위기 대응에 나섰다. 대부분은 쇠고기 값 인상분을 그대로 반영,음식가격을 올렸다. 몇몇 식당은 쇠고기 가격 인상과 공급 부족에 따라 고기의 두께를 줄이는 방식으로 생존 전략을 모색했다. 패스트푸드점은 쇠고기 메뉴가 들어가는 햄버거 메뉴를 줄이고 대신 칠면조 고기버거 등을 판매하고 있다.

/조선미기자

공무원·군인연금, 혈세 14조 적자보전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데 투입된 국민 세금이 지난 5년간 14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 및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3조9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공무원·군인 연금 지급액(51조8000억원)은 이들이 불입한 연금 보험료 수준(37조9000억원)을 넘어 국민의 세금으로 부족액을 채워준 것이다.

2010년 통계청 추계인구(4941만명) 기준으로 국민 1명이 5년간 퇴직한 공무원과 군인 호주머니에 28만원씩을 넣어준 셈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보다 훨씬 가팔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적자 보전액은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적자 보전액은 2009년 2조8000억원에서 2010년 2조4000억원으로 줄어드는 듯했지만 2011년에 2조6000억원, 2012년 2조8000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 3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중앙정부 부채(1117조3000억원) 가운데 연금충당 부채(596조3000억원)가 53.3%를 차지할 정도로 이미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에도 3조8000억원의 적자를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유주영기자 boa@

무제한 요금제로 영업정지 돌파

SKT·KT 이탈 가입자↓… LG U+ 요금제 문의↑

영업정지 상태인 SK텔레콤과 KT가 무제한 요금제로 선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로 별다른 마케팅이 어려운 가운데 무제한 요금제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출시 이틀만인 지난 4일 신규 가입자 8만명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2만여 명은 경쟁 통신사에서 건너왔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 2일 무제한 요금제를 선보인 SK텔레콤의 번호이동 순증 추이는 당일 7268명, 3일 7806명이다. SK텔레콤의 영업 정지 시작 전날인 4일에는 1만1972명까지 올랐다. 영업 정지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벌인 신규 요금제 홍보와 마케팅 영향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SK텔레콤은 불법 마케팅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KT도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효과로 가입자 지키기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지난 7일부터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서비스했다. KT는 무제한 요금제 출시 전주에는 하루 평균 4800명 가량의 가입자 이탈을 보였다. 하지만 출시 이후에는 2900명대로 감소세가 줄어들었다.

지난 10일 기준 KT의 가입자 이탈 수는 2801명이었다. 일주일 전인 3일 4427명이 빠져나간 것에 비해 절반의 가입자를 지킨 셈이다.

무제한 요금제를 가장 먼저 선보인 LG유플러스는 정상 영업 재개를 맞아 순항 중이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2일 LTE8 무한대 요금제 출시 이후 요금제 변경 문의가 5배 이상 늘어났다. 1차 영업정지를 마치고 5일부터 영업을 재개한 LG유플러스는 평일 첫날 신규 가입자 2만4404명을 기록했다. 이후 일평균 8500명의 순증을 보이며 정상영업의 단맛을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SK텔레콤과 KT가 LG유플러스를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 영업 혐의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하면서 통신 업계에 긴장감이 흘렀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시장 점유율이 제일 낮은 LG유플러스가 상대적으로 타사보다 신규 가입자 유치 보폭이 큰 것은 당연하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ETF, 해외투자 '눈길'

매년 30% 넘는 급성장을 거듭해 온 상장지수펀드(ETF)가 본격적인 해외 투자에 나서는 등 추가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이용국 증권상품시장부 부장은 지난 10일 거래소 주최로 열린 'ETF를 활용한 자산배분전략' 세미나에서 "국내 ETF 시장의 지난달 일평균 거래대금이 8100억원으로 설립 첫해인 2002년에 비해 24배 늘었다"며 "다만 상품 유형별 거래대금 비중을 보면 해외지수 관련이 0.9%에 그치고 상품은 0.1%, 통화·부동산 관련은 전무해 향후 이 부문의 시장을 집중적으로 키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일본 토픽스지수와 중국 H주(홍콩상장 중국법인)에 투자하는 레버리지 ETF 상품을 상장할 예정이다. 유로존 12개국의 상장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유로스톡스 50 ETF도 추진 중이다.

거래소는 앞으로 전 세계 모든 기초자산을 토대로 한 ETF 상품을 선보여 국내 ETF 시장이 글로벌 자산관리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외지수 ETF 상품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과세문제를 정부와 협의해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며 "해외 유명 ETF를 국내 시장에 상장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이색 조명기기 보세요" 갤러리아명품관 웨스트5층에 위치한 패션 IT, 소품 편집매장인 게이즈샵에서 로봇조명을 비롯한 이색 조명 기기들이 13일 선보였다.

/갤러리아백화점 제공

삼성전자, '갤럭시S5' 화려한 출시

삼성전자가 미디어 아트로 갤럭시S5 전세계 출격을 알렸다.

삼성전자는 지난 11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뜨락 광장에서 전략 스마트폰 신작 갤럭시S5 전세계 출시 행사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종문화회관 건물 외벽에 미디어 아트 영상을 투사하는 것을 중심으로 현대 무용과 오케스트라 향연을 병행했다. 유명 작가 홍경택, 황주리, 김양희의 디자인 작품과 갤럭시S5의 콜라보레이션도 공개됐다.

삼성전자와 세종문화회관 협업으로 이뤄진 갤럭시S5 출시 미디어 영상은 차가운 도시가 새로운 미적 영감을 얻어 문화의 산실로 재탄생하는 모습을 담았다.

영상은 눈동자와 일체로 반응하는 카메라, 체력 관리를 돕는 헬스 케어 등 갤럭시S5의 각종 기능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박인배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기술과 예술의 결합 등 앞으로도 새로운 시도를 통해 시민들이 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미디어 아트는 제한된 공간과 익숙한 관람 형태를 탈피해 갤럭시S5와 예술을 더욱 생생하게 즐기는 기회"라고 말했다.

미디어 아트 영상은 24일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3시간 동안 세종문화회관에서 상영된다.

/장윤희기자

market index <11일>

코스피 1997.44 (-11.17)

코스닥 555.87 (+0.77)

금리(국고채 3년) 2.86 (변동없음)

환율(원·달러) 1036.00 (-1.50)

뉴스&뉴스

삼성 공채 10만명 몰려

●삼성그룹이 13일 올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인 '삼성직무적성검사(SSAT)'를 전국 85개 고사장에서 실시했다. 이번 시험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인턴 직 2만 명을 포함해 10만 여명이 응시했다.

삼성고시로 불리는 SSAT는 일부 내용이 개편돼 단기 집중학습에 의한 효과를 배제하고, 오랜 기간의 독서와 경험을 통해 종합적·논리적 사고 능력을 갖춘 인재가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언어·수리·추리·상식 등 기존 4가지 평가 영역에 시각적 사고를 추가하고, 상식 영역에서 인문학적 지식 특히 역사와 관련된 문항을 확대했다.

삼성은 상반기 4000~5000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뽑을 예정이다.

/김태균기자 ksgit@

수입국 품목분류 기재 허용

자유무역협정(FTA) 관세특혜에서 국가별 품목분류가 상이할 경우 수입국 품목분류 기재를 허용해 유럽연합(EU) 인증수출자 번호 확인을 위해 EU측에 온라인 정보제공을 요청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개 관계 부처 및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인 '제9차 FTA 활용 촉진협의회'를 무역협회에서 11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FTA 추진동향 및 계획 ▲국가별 품목분류 상이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방안 ▲EU 인증수출자 번호 관련 수입기업 애로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종=유주영기자 boa@

로또복권 제593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9	10	13	24	33	38	28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1,532,833,500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37,084,682
3등	5개 숫자 일치	1,264,715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은행권, 톱★모델로 '이미지↑'

하나 김수현·외환 하지원·농협 류현진

은행업계가 잇단 사건사고로 훼손된 이미지를 되찾기 위해 톱스타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배우 김수현을 모델로 한 TV 광고를 선보이고 있다. 김수현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로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등 국외에서도 '별그대 신드롬'을 일으키는 한류스타다. 김을 통해 이미지 회복에 나선다는 것. 김수현을 모델로 한 이번 광고는 고객 생활 속에 금융이 필요한 순간 '작전 타임'을 외치며 차별화된 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모습을 담았다. 하나은행 측은 "공감을 통한 재미 요소와 배우 김수현을 통한 신뢰의 이미지 모두를 잡았다"고 평가했다.

광고업계에서 김수현의 1년 전속 모델료는 1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은 올해로 4년째 배우 하지원을 광고 모델로 쓰고 있다. 지난해 출시한 외환은행 2X카드가 하지원을 모델로 활용한 덕분에 외환은행 최초로 밀리언셀러 카드가 되기도 했다. 하지원의 모델료는 연간 4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 측은 올해도 톱스타를 통한 마케팅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외환은행의 강점인 해외 네트워크와 외국환 분야의 강점을 부가기킨 '그래그래 외환은행' 2탄을 선보였다. 지난해 론칭한 광고가 국내 최다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강점을 강조했다면 2탄은 해외에서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에 초점을 맞췄다.

농협은행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야구선수 류현진과 2년간 18억원에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수년동안 은행권에서는 가장 많은 광고비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아파트, 고급커뮤니티시설 '진화'

수영장·캠핑장·연회장 등 조성

인천 구월보금자리지구 '구월 한내들 퍼스티지' 중앙광장에 조성될 캠핑장 이미지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자 고급화된 커뮤니티시설로 중무장한 아파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과거 노인정, 놀이터, 휴게소가 전부이던 것에서 이제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사우나 등은 기본이 됐다.

최근에는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보다 진화된 커뮤니티시설이 선보이기도 한다. 몸매·건강관리에 높아진 관심을 반영해 수영장이 지어지는가 하면, 레저문화를 즐기는 특성에 착안해 캠핑장이나 클라이밍장을 조성하는 식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이달 말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할 '호반베르디움'에 3레인 규모의 단지 내 실내수영장을 조성한다. 지금까지 실외수영장을 제공한 아파트는 있었지만 송도지역 내 실내수영장을 갖춘 아파트가 공급되기는 처음이다.

유승종합건설은 인천 구월보금자리지구 S-2블록 '구월 한내들 퍼스티지'에 캠핑장을 조성키로 했다. 캠핑장은 야구장과 축구장을 합한 면적의 중앙광장에 들어설 예정이다. 또 GS건설도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한강센트럴자이'에 소형 캠핑데크를 제공한다.

코오롱글로벌은 서울 성북구 돈암동 '돈안 코오롱하늘채'에 칼로리 소모가 크고 두뇌 사용이 많아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은 운동으로 꼽히는 클라이밍장을 설치한다. 또 소리가 나는 피아노계단과 그네의 움직임에 따라 소리가 나는 뮤직스윙 등도 제공한다.

반도건설은 경남 양산시 물금지구 13블록 '남양산역 반도유보라5차'에서 양산신도시 최초로 단지 내 2층 규모의 별동학습관을 설립한다. 이곳에서는 자기주도학습 영어도서관인 '와이즈리더'와 부산대 평생교육원과 연계한 성인을 위한 문화강좌를 들을 수 있다.

/박선옥기자 pso9820@

갤럭시S5, 국내 일평균 1만대 '순항'

해외 판매도 S4 실적 초과… 카메라, 방수·방진 기능 호평

삼성전자가 지난 11일 '갤럭시S5' 글로벌 출시를 발표한 가운데 인도 현지에서 열린 갤럭시S5 출시 행사에서 사람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5'가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기간에도 국내 시장에서 일평균 1만대 이상 판매되며 '순항'하고 있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SK텔레콤을 시작으로 판매를 시작한 갤럭시S5는 11일까지 누적 판매량 12만대를 기록했다.

전산 개통이 가능한 영업일수가 12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평균 1만대가량 판매된 것. 이는 전작인 '갤럭시S4'의 초기 출시 하루 평균 판매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이 기간 갤럭시S5의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약 28%로, 전작들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만일 이통사 영업정지가 없고 보조금 효과도 있었더라면 이를 훨씬 뛰어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해외에서도 갤럭시S5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삼성전자는 지난 11일 갤럭시S5의 125개국 글로벌 동시 출시를 시작하면서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버라이즌, AT&T, T모바일, 스프린트, US셀룰러 등 5개 사업자가 동시에 갤럭시S5를 선보였다. 판매 첫날 실적이 갤럭시S4의 1.3배에 달하는 등 사업자별로 고른 판매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 소비자들은 주요 구매 요인으로 카메라 성능, 방수·방진 기능, 뛰어난 디스플레이를 꼽았다.

프랑스 파리 마들렌에 위치한 삼성 스토어에서는 8시 개장 직후 한 시간만에 200대가 판매되고 준비된 수량 800대가 매진됐다.

영국과 체코에서도 출시 전부터 주요 매체들의 호평이 이어진 가운데 출시 첫 날 갤럭시S4 대비 2배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독일에서는 갤럭시S5 출시 첫 날 평소보다 20%나 많은 고객들이 삼성 스토어를 방문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밖에 북유럽에서는 현지 기후를 고려한 방수 기능, 대화면과 뛰어난 화질이 현지 미디어와 고객들의 호평을 이끌어냈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에선 갤럭시S5의 방진 기능과 울트라 파워 세이빙 모드 등 현지 환경에 특화된 기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S5가 출시 이후 국내·외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면서 "향후 다양한 삼성전자의 프로모션과 앞선 기술력에 대한 반응을 볼 때 국내·외에서 꾸준한 판매량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국내 최초 고령자 간편심사 암보험

라이나, 80세까지 확대

라이나생명보험(대표 홍봉성)은 고령자 대상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의 가입연령을 80세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암발생률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암 발생자는 인구 10만명당 남자 412.4명, 여자 397.7명으로 2009년 대비 4% 증가했다. 특히 75~79세의 암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1805명으로 전체 평균인 405.1명과 비교했을 때 4배가 넘는 높은 수치이다.

이를 반영해 가입나이에 제한 또는 인수기준을 완화한 실버암보험 상품을 재출시했다. 라이나생명은 2012년 7월 국내 최초로 고령자 전용 암보험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이 상품은 고령자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고혈압, 골다공증 같은 노인성질환에 대한 무심사를 적용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상품으로 고안됐다.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은 61세에서 80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 가능토록 고안된 10년 만기 암보험 상품으로,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위암·대장암·간암 등 일반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 치료보험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400만원을 보장받는다. /김태균기자 ksgit@

국내 독점 '카톡 게임하기' 적수 만났다

밴드게임, 드래곤프렌즈 등 10종 출시

국내 모바일게임 플랫폼 비즈니스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카카오톡 게임하기'가 강적을 만났다. 친구나 가족 등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대표 폐쇄형 SNS 밴드가 게임 플랫폼 '밴드 게임'을 서비스한다.

창업 이래 수년간 적자에 시달리던 카카오는 '게임하기' 비즈니스 모델 도입 후 급성장했고 지난해 매출 2108억원, 순이익 615억원을 기록했다. '게임은 애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치부하기에는 판이 큰 게 사실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밴드 게임은 21일 NHN엔터테인먼트의 드래곤프렌즈, 위메이드의 아크스피어 등 10종을 출시한다.

밴드 게임이 카톡 게임하기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는 특유의 폐쇄성이다.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누구나 친구가 되는 카톡과 달리 친한 사람이나 가족만 멤버가 될 수 있다. 밴드 이용자 1인당 월간 체류 시간이 다음이나 네이버 카페보다 긴 이유다.

밴드를 내려받은 사람은 2900만명으로 1억명이 넘는 카톡에 비해 열세지만 멤버 간의 끈끈함에서 차별화가 가능하다.

게임 공급사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저렴해지는 것도 장점이다.

카톡 게임하기는 구글이나 애플이 매출의 30%를 가져간 뒤 나머지 70%의 30%를 가져간다. 즉 게임사는 매출의 49%만 손에 쥘 수 있다.

반면 밴드 게임은 나머지 70%의 20%를 제한다. 게임사에 떨어지는 볼륨은 56%로 커진다. 여기에 구글이나 애플이 아닌 네이버 자체 앱스토어를 이용할 경우 파이는 64%로 급증한다.

진입 장벽이 낮은 것도 밴드게임의 특징이다. /박성훈기자 zen@

신용카드 민원 '올 스토리'… 이것만은 알자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연회비, 최초면제 없고 1년 휴면카드 청구 불가

1 "가입할 때 연회비를 면제해준다고 했는데 카드명세서에 연회비가 빠져나가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금감원: 금융당국은 불필요한 카드 발급을 막기 위해 카드사의 최초년도의 연회비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드사 직원의 방문 등으로 가입했다가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면 불법모집으로 금감원이나 여신금융협회로 신고가능합니다. 여신금융협회의 경우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도 운영 중입니다.

2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서 연회비가 나왔습니다."

금감원: 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보면, 1년 이상 미사용 휴면카드에 대해 연회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휴면카드인데 연회비가 나왔다면 해당 카드사 민원실로 연락해 청구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불필요한 카드는 신속하게 해지해야 연회비를 조금이라도 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3 "카드 채무 파산·면책을 받았는데도 카드 발급을 거절당해 억울합니다."

금감원: 카드사는 신청자의 가처분소득과 신용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카드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과거 연체이력이 있거나 채무기록이 존재한다면 이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신용정보를 최장 5년 이상 적용할 수 없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4 "아무 이상 없이 사용하던 카드를 갱신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발급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감원: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끝난 회원은 카드사와 갱신 발급을 맺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계약에 해당하므로 카드사는 회원의 소득과 상환능력을 자체 기준에 따라 다시 평가합니다. 카드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회원 본인의 실질소득과 채무현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

5 "며칠 연체했더니 카드 이용한도가 50%나 하향조정됐는데요, 원래 한도로 복원하고 싶습니다."

금감원: 카드사는 연체가 발생한 회원에 대해 월평균 결제능력을 고려해 이용한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으로 이용한도를 조절하므로, 한도를 높이고 싶다면 신용도 관리를 철저히 해 신용등급이 향상된 뒤 카드사에 증액해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6 "중고차를 사면서 차량 대금을 카드로 결제했는데 판매자 측이 카드 수수료 3%를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불하고서 영수증도 받지 못했는데 돌이켜보니 업주의 부당한 처사 같아 돌려받고 싶습니다."

금감원: 관련 법규상 신용카드 결제 시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에게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카드에 대해 현금과 달리 할증을 요구하는 곳을 발견한다면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카드 부당대우나 거래거절 가맹점에 대해 경고나 불량가맹점 등재, 가맹점계약 해지, 국세청 등 유관기관 통보와 같은 제재조치를 가합니다.

7 "연체금액이 크지 않은데도 카드사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와 문자로 독촉을 하고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압박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금감원: 관련 법률은 카드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를 반복적으로 방문하거나 오후 9시 이후의 야간시간대에 전화, 문자 등을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 절차가 실제 진행되지 않는데도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금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한 뒤 해당 금융회사 민원실에 불법 채권추심으로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불법 채권추심이 계속 이어진다면 경찰서 수사과의 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의: 금감원 금융상담전화(국번없이 1332)

/정리=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이젠 문자로 묻고 답하자' KT는 고객 편의 확대를 위해 지난해 7월 업계 최초로 선보인 '올레 문자 고객센터'가 서비스 개시 9개월 만에 이용 건수 월 100만 건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KT 제공

경남, 동탄2신도시 조기 완판

경남기업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A-101블록에서 분양한 '경남아너스빌'이 계약 4일 만에 조기 완판됐다.

경남기업은 지난 8일부터 실시한 '동탄2신도시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계약이 4일 만인 11일 100% 마감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아파트의 순조로운 분양 마감은 일찍 예상됐다. 지난달 오픈한 견본주택에는 주말까지 3일간 1만6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가 하면, 이후 실시한 청약에서도 평균 3.27대 1, 최고 23.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시범단지와 인접한 입지 프리미엄에 합리적인 분양가가 더해져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며 "무엇보다 경남아너스빌이 지난 브랜드 가치를 분양 받아 단기간에 계약을 완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남기업은 앞으로 남은 대전시 문지동과 거제시 사동면, 부산시 초량동 등의 분양에서 경남기업의 명성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박선옥기자

"공식만 따라가면 부자 된다"

금융가 사람들

■ 이관석 신한은행 본부장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모두 부자가 되지는 못한다. 하지만 '$FV=PV(1+r)^n$' 공식만 따라하면 부자로 가는 길에 한발 가까워질 수는 있다. 수익률(r) 높은 상품에 최대한의 돈(PV)을 투입해 오랜 기간(n) 투자한다면 많은 돈(FV)을 모으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공식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실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저성장시대로 접어들면서 수익률 높은 상품을 찾기가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뻔한 월급 받아 사는 직장인들이 무작정 저축액을 늘릴 수도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관석(사진)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부 팀장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게 중요하다"며 "20~30대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당연한 얘기 아니냐고 흘려들을 게 아니라 부자공식에 따라 종자돈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자공식 PV(저축금액), r(수익률), n(투자기간) 중 사회초년병 스스로 쉽게 조정할 수 있는 PV다.

이관석 팀장은 "보통 소득에서 지출을 한 뒤 남은 돈으로 저축을 하는데, 반대로 소득에서 저축을 하고 남은 돈으로 지출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며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면 돈을 모으기가 힘들어지는 만큼, 그 전에 최대한 모으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은행 예금금리가 2%대에 불과한 지금, 돈을 모으는 데도 전략이 필요하다.

그는 "효과적으로 종자돈을 만들어야 하는 20~30대일수록 저축액의 배분을 잘 해야 한다"며 40% 정도는 목적형 금융상품에 불입하기를 권유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금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 상품의 경우 내집마련과 노후준비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안전하면서도 일반 은행 예·적금과 비교해 수익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다만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만큼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팀장은 "목적형 금융상품에 들어가는 40%를 제외한 나머지는 적립식펀드 위주로 넣되, 투자기간을 설정해둬야 중간에 돈이 급해 상품을 손해보고 해약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화려함에 안정감 더했다"

■ 재규어 XJ 3.0 AWD

상시사륜구동 시스템 추가
연비, 경쟁차보다 떨어져

▲한 줄 평가: 주행안정감이 더욱 향상됐다. 연비는 경쟁모델보다 떨어진다.
▲평점: ★★★★

국내 프리미엄 세단 시장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와 BMW 7시리즈, 아우디 A8, 렉서스 LS 정도가 물망에 올랐다면 지금은 재규어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

재규어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차는 플래그십 모델인 XJ다. 지난 2010년 등장해 갈수록 라인업을 늘려가고 있는 XJ에 이번에 더해진 모델은 3.0 AWD 모델이다. 후륜구동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겨울철 주행을 보강하기 위해 태어난 이 모델을 며칠간 시승해보며 파악해봤다.

외관은 기존 모델과 큰 차이가 없다. 시승차는 LWB(롱 휠베이스) 모델로, SWB(숏 휠베이스) 모델보다 휠베이스(앞뒤 축간 거리)가 125mm가 늘었으나 원래 긴 차체여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늘어난 휠베이스는 뒷좌석 공간을 늘리는 데 고스란히 사용됐다. 시트 각도는 14.5도 범위 안에서 조절되고, 앞뒤로 103mm 움직인다. 실제로 뒷좌석에 앉아보면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안락하고 편안하다.

시승 모델의 또 다른 특징은 전천후 주행능력을 자랑하는 AWD(상시사륜구동) 시스템이다. 평소 후륜구동과 같은 구동력 배분으로 주행하다가 접지력의 변화가 생기면 앞바퀴로 최대 50%까지 구동력을 보낸다. 미끄러짐이 감지되면 TCCM(Transfer Case Control Module)이 즉각적으로 토크를 앞축으로 보내는 구조다.

공차중량은 SWB 모델에 비해 110kg 무거운데, 주행을 해보면 기존 모델과 구별하기 힘들다. 그러나 워낙 차체가 큰 탓에 연비는 좋지 않다. 표시연비는 도심 6.6km/ℓ, 고속도로 10.8km/ℓ, 복합 8.0km/ℓ인데, 시가지와 간선도로를 절반씩 섞어 달린 이번 시승에서는 5.0km/ℓ를 기록했다.

같은 엔진을 얹은 후륜구동 모델은 복합 8.4km/ℓ로 조금 나은 편이지만 역시 동급 모델에 비하면 열세다. 동급 배기량의 BMW 740i는 복합연비가 9.9km/ℓ로 훨씬 낫고, 아우디 A8 3.0L 모델도 8.8km/ℓ로 XJ를 앞선다.

재규어 XJ의 강점은 흔해진 독일차에 비해 희소가치가 있다는 점과 화려한 내부 인테리어를 꼽을 수 있다. 호화 요트에서 가져온 인테리어 콘셉트와 훌륭한 음질의 오디오는 차안에서 휴식을 취하기에 더 없이 좋다. 가격은 3.0SC AWD 프리미엄 럭셔리 LWB가 1억5270만원, 3.0SC AWD 포트폴리오 LWB가 1억6470만원이다. 3.0S C AWD 프리미엄 럭셔리의 경우 후륜구동 모델과의 가격 차이는 약 500만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현대·기아차, 내수 인기모델 90% 차지

국내 완성차업계의 판매순위에서 현대·기아차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르노삼성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최근 펴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승용차 모델별 내수판매 순위에서 기아 모닝이 작년 12월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현대 그랜저가 2위, 현대 싼타페 3위, 현대 아반떼 4위, 쉐보레 스파크가 5위를 차지했다. 기아 모닝은 3월에 판촉활동을 강화한 결과 9169대나 판매됐다. 현대 투싼ix가 3월 들어 새롭게 10위권에 진입한 것도 특징이다.

지난 1~3월 모델별 누적 판매에서는 현대 그랜저, 기아 모닝, 현대 싼타페가 1~3위를 기록했다. 랭킹 10위권에 현대차(그랜저, 싼타페, 아반떼, 쏘나타, 제네시스)가 5개 모델, 기아차(모닝, K5, K3, 스포티지)가 4개 모델, 한국GM(스파크)이 1개 모델을 차지했다.

한편 3월 모델별 수출순위는 엑센트, 아반떼, 프라이드, 트랙스의 순이었다. 엑센트는 2만5096대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으며, 아반떼, 프라이드, 트랙스, 쏘울이 그 뒤를 이었다. 수출 10위권에 기아차(프라이드, 쏘울, K3, 모닝, 스포티지R)가 5개 모델, 현대차(엑센트, 아반떼, 투싼)가 3개 모델, 한국GM(트랙스, 스파크)이 2개 모델씩 차지했다. 반면 르노삼성과 쌍용차는 내수와 수출 모두 10위 안에 단 한 개의 모델도 포함되지 않았다.

/임의택기자

<경소형차, 중대형차 인기 중고차 시세> 단위: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쉐보레	마티즈	640	660	680	620	-
기아	뉴모닝	580	470	520	560	-
현대	엑센트	-	-	1,100	1,170	1,230
	아반떼	-	1,230	1,240	1,550	1,530
기아	K3	-	-	-	1,540	1,490
삼성	SM3	950	1,180	1,070	1,270	1,290
쉐보레	크루즈	-	-	1,310	1,670	1,620
현대	YF소나타	1,360	1,350	1,400	1,790	2,030
삼성	SM5	1,030	1,380	1,320	1,650	-
쉐보레	말리부	-	-	2,090	2,010	2,330
현대	제네시스	2,180	2,350	2,690	3,270	3,980

정보제공 :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포드포커스, 2년 연속 세계 최다 판매

2012년 101만4965대 이어 지난해 102만410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대표이사 정재희)는 시장 조사 기관인 IHS 오토모티브 산하 폴크(Polk)가 최근 발표한 전 세계 신차 등록 자료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세계적으로 총 102만410대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포드포커스(사진)는세계 최고 판매고를 기록했던 2012년 판매고 101만4965대보다 8.1% 늘어난 수치다.

포드 포커스가 2년 연속 글로벌 베스트 셀링 카로 자리매김한 것은 중국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판매 호조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커스는 중국 내에서만 2012년 26만8354대에 비해 무려 50% 늘어난 40만3219대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인기 행진을 이어갔다.

한편 포드는 지난 3월 제네바 모터쇼에서 포커스 3도어 및 5도어 해치백과 왜건 버전의 신 모델을 선보인 바 있다. 이어 이달 개막하는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포커스 4도어 세단 신 모델을 공개한다. 첨단 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포커스에는 수차례 수상을 통해 최고의 엔진으로 인정받은 바 있는 1.0 에코부스트 엔진이 탑재되어 탁월한 연비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짐 팔리(Jim Farley) 포드 그룹 글로벌 세일즈/마케팅 총괄 부사장은 "포드 포커스가 다시 한 번 전세계 베스트 셀링 카로서 업계를 선도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조만간 운전자를 위해 한층 개선된 신기술과 현대적이면서도 매력적인 디자인을 더한 포커스의 새로운 모델을 선보여 끊임없는 개선과 진보를 향한 포드의 높은 기준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커스는 국내 시장에서도 포커스 디젤을 통해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포커스 디젤은 동급 대비 매우 우수한 20.1km/ℓ(고속도로 기준)와 17km/ℓ(복합연비 기준)를 자랑한다.

/임의택기자

우수여행인증상품

건전한여행

안전한여행

국내여행 50개상품

DMZ관광 02-706-4851 육군보병5사단과 함께하는 병영 체험 I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와 함께 평화안보&병영체험 I DMZ 철책선 걷기와 임진강유역 생태계 탐방 롯데관광개발 02-2075-3015 [담양 맛있는여행] 음식은 맛깔나고, 온천은 빛깔나게! 완전정복 2일 I [경북시티투어] 붉은대게먹고, 한우먹고, 백암온천 2일 I [대구맛있는여행] 대구 10미 얼큰! 화끈! 대찬 맛 I [전북시티투어] 풍천장어먹고, 석정온천스파하고, 편백나무 힐링 2일 I [구구투어] 청풍명월 제천! 자드락길 트래킹 당일여행 솔향공여행사 02-2279-5959 전주 한옥마을과 군산 근대문화유산 모두투어네트워크 02-728-8791 한국이야기 동남부권 4일 I 안동으로 떠나는 전통체험여행 1박2일 I 한국 이야기 한려수도 3일 뭉치마이스 064-724-6887 탄소중립 "저탄소로하스" 투어 I 제주삼다+레저체험 I 탄소중립 "CO2(-) 에코(+)" 투어 I 탄소중립 '탄소발자국' 투어 밝은여행 064-712-6006 아랑졸띠 숨비투어 3일 삼성여행사 053-431-3006 동화사/대구골목투어 /김광석거리 센타투어 02-730-7311 2013 무주 시장투어 I 2013 하동 시장투어 I 2013 풍기 시장투어 I 2013 남해 시장투어 쏙쏙체험 02-2633-7131 재미 쏙~! 추억 쏙~! 우리가족 체험! 캠핑여행 여행스케치 02-701-2506 명사와 함께 하는 서산여행! 아는만큼 보인다. 서산 명소 문화답사 여행 I 청태산 자연휴양림 숲 체험과 횡성 전통시장 & 새콤달콤 딸기 따기 연두의 여행이야기 052-260-1212 푸르른 하늘로의 비행 항공 수상 캠프 천지관광 02-732-8008 新 제주 퍼펙트 투어 I 新 생태올레 한라산가자투어 064-747-2010 신(新) 제주완전정복(샹그리라 요트 +씨푸드 뷔페+비양도+우도) I 올레제주 맛과멋(전일정 노팁노옵션+전일정 별미식사) I 제주완전정복(4도탐방) I 제주 5도(五島) 탐방 해밀여행사 1577-7788 ITX-청춘 추억의 낭만열차 코레일관광개발 02-2084-5737 [정선5일장] 신나는 레일바이크/아라리촌 I [三色테마]정동진/바다열차/레일바이크 I 울진붉은대게 /백암온천/성류굴/불영사 코레일투어 02-373-8881 전남 맛집일주 1박2일 I 정선레일바이크*바다열차 1박2일 I 정선 레일바이크 당일 기차여행 하나투어ITC 02-398-6670 [내나라 여행] 남도일주 2박3일 I [내나라여행] 다도해일주 2박 3일 I [내나라여행] 강원일주 2박3일 I [내나라여행] 한국일주 6박7일 I [내나라여행] 한려 2박3일 한국드림관광 02-849-9013 역사와 문화가 깃들여져 있는 진주! 자연과 함께 떠나는 산청여행(1박2일) I 내가 제일 잘나가! 울릉도 귀족투어 I 하늘과 바다, 땅과 숲이 맞닿은 울릉도 알뜰투어 홍익여행사 02-717-1002 오대산/바다열차/ 설악산 2일 I 부석사/소수서원/하회마을 2일 승우여행사 02-720-8302 해파랑길 이어걷기

해외여행 일반패키지 48개 상품

노랑풍선 02-2022-2592 [노쇼핑] 베트남 다낭/후에/호이안 3박5일 I 로얄타워+호핑투어+BBQ 4일 I [인도네팔] 남인도 북인도 네팔일주 12일 KE I 터키 완전 일주 9일 I [푸켓/파통/특급] 씨썬샌드 & 노보텔빈티지 & 엠브레이스 롯데관광개발 02-2075-3015 [북알프스의 영봉]도야마 알펜루트, 구로베협곡&카미코지 4일 I「프라하와 비엔나, 그 천년의 향기」동유럽 9일 I [패키지]「팁포함+특급호텔+국내선 2회」터키항공일주 8일 I 황산(정상숙박)+삼청산 5일[리무진 탑승] I 인도 골든트라이앵글+ 바라나시 9일[OZ] KRT 02-2124 -5673 [나고야]코코파/유아미노시마온천/이세신궁 3일 I 치앙마이/골든트라이앵글+라오스 목련도 5일 I 〈오직〉UNESCO박물관 중동(두/레/요/이) 11일 I 〈노팁! 노쇼핑!〉 사이판 PIC 골드 4일(오전출발) I 발칸을 만난 동유럽 7국 9일 모두투어 네트워크 02-728-8791 [골드카드/아동반값] 푸켓 JW메리엇 카오락 5일, 전일 호텔식+다양한 액티비티+럭셔리 휴양 I [Premier 名品모두단독] 선/진/국/형 미서부 퍼펙트 일주8일 I [효자, 효녀]방콕/파타야 5일, 초특급↑ 7가지 특전 I [품격]호주/뉴질랜드 남북섬 10일(선셋투어/밀포드사운드) I [GOLD CLASS 단독] 미동부 캐나다 10일 [★나이아가라 2박★/뉴욕/워싱턴/★퀘백숙박★/보스턴/아울렛] 레드캡투어 02-2001-4586 동남아시아 3개국 스타크루즈 버고호 6일 I 발칸 7국 13일 I 알래스카 크루즈+시애틀/빅토리아 9일 한진관광 02-726-5879 아드리아해의 진주 발칸 3국 9일 [인도양의 보석] 스리랑카 6일 I [골든힐뷰] 나트랑 빈펄리조트(노팁+호텔식+호핑투어) 5일 I 발데즈와 빙하 파노라마 4박 6일(발데즈+콜롬비아+기차) I [단독/노팁/노옵션][세계문화유산탐방]중남미 7개국 20일 여행박사 070-7017-2123 *우레시노 전통료칸+쿠쥬고원코티지* 일본 전통료칸에서 만끽하는 천연노천온천+일본 전통 가이세키 코스요리 체험 온누리투어 02-2017 -7081 르네상스 리조트 푸켓 5일 I 골라먹는 미식투어, 몽땅포함 3박5일 (보라카이) I 터키일주 8일[TK] 투어이천 02-2021-2000 미얀마(버마)/바간/혜호(인레호수) 6일 I 블루마운틴 100배 즐기기 시드니/저비스베이/울릉공/블루마운틴 6일 I 베트남/하노이/하롱베이/닌빈 I「플룸열차+요정의길」북유럽 4국 8일 혜초여행개발 02-733-3900 하늘호수 판공쵸/레/라다크/스리나가르 대장정 13일 I 안나푸르나 푼힐전망대+베이스캠프 트레킹 11일(KE) I 환상의 캐나다 로키 하이라이트 트레킹+나이아가라 9일 I 세계3대 트레킹 호도협+옥룡설산 성도/여강 6일 I [품격]남인도 스리랑카 문화탐방 14일 파라다이스 티앤엘 02-2260-2025 [코카서스]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그루지아 10일 I 몽골/바이칼+시베리아 횡단열차 8일 I 중앙아시아 5개국 16일 I "히말라야의 낙원" 동인도/부탄/ 방글라데시 15일 I [코트라쥐르]남프랑스일주 8일 코레일관광개발 02-2084-5737 "시베리아횡단열차 탑승" 블라디보스톡/하바로브스크 4일 I 신칸센 타고 新큐슈 일주3일(가고시마/미야자키/구마모토/후쿠오카 2박3일)

해외여행 배낭여행 2개 상품

파라다이스티앤엘 02-2260-2025 [초특급]미야자키 쉐라톤그랜드 리조트 KRT 02-2124-5673 요나고 & 돗토리 자유여행

해외여행 허니문 6개 상품

가야투어 02-554-0251 [허니문]후아인 Hilton Resort & Spa 5일 I [허니문]오아후 Hyatt Regency Waikiki Beach 반자유 일정 6일 I [허니문]후아힌 Hilton Resort & Pool Villa 연계 I [허니문]스위스 일주 - Romantic Route 7일 모두투어 네트워크 02-728-8791 [마우이데이투어] 화와이 하얏트 리젠시 허니문 6일 I 칸쿤 더 로얄 7일 올인클루시브+셀하/똘룸관광+미니쿠퍼

아빠~어디가?

아이의 맑은 미소처럼 즐거운 여행,
'우수여행상품'으로 여행이 건전하고
더욱 즐거워집니다.

'2014/2015 우수여행상품' 접수 공고

- 사업주최/주관 : 한국여행업협회(KATA)
- 신청기간 : 2014. 04. 14(월) ~ 04. 29(화)
- 문의전화 : 02-6200-3914

검색창에서 **여행정보센터** 를 검색하시면 상품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에서 우수여행상품을 찾아보세요.

우수여행상품인증제도는 '건전여행' 정착과 여행상품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전국 여행사의 신청상품을 대상으로 전문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심사 • 평가를 통하여 선정되어집니다.

주최

후원

발암공포에 떠는 10만명

뉴스룸에서
이 충 건
<편집위원>

당뇨 환자가 주변에 많다. 증가폭이 가파르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발병하는 추세다. 환자라기보다는 당뇨인이라고 자연스레 부를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요즘의 생활습관이나 식단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최근 발표된 '2013 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덜 걷고 술은 더 마신다"가 조사의 주내용이다. 이 때문에 당뇨와 고혈압 환자가 늘고있다는 분석이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합병증을 두려워한다. 그 때문에 그들은 운동이나 식생활 개선에 적극적이다. 철저하게 혈당체크등 자기관리에 나서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절박함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건잡을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당뇨환자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당연히 약 복용이다. 정기적인 의사처방으로 약을 복용하며 만성질환을 극복하려 노력한다.

그런데 최근 당뇨인들은 미국 법원의 당뇨약 '액토스(성분명 피오글리타존)'의 '발암가능성' 은폐에 따른 징벌적 배상판결에 언짢아 한다. 미국에서는 발암 위험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논란이 일뿐 다른 조치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이 약이 과거에 문제가 됐고 그 당시 경고대응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다른 후속책을 취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판결이 액토스와 방광암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생산업체인 다케다제약이 발암위험 가능성을 환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를 인정했다는 사실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알고있는 사실일뿐 새로운 것이 없다는 판단인 셈이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당뇨 환자나 가족들은 찜찜한 심정을 애써 억누르며 한숨쉰다.

액터스는 제2형 당뇨환자의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는 약물로 국내에서 이 약을 복용하는 환자는 1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10만명이 매일 암에 대한 공포에도 마지못해 약을 먹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의사가 처방하면 불안에 떨며 먹어야 하나.

만약 10만명이 식중독이라도 걸렸으면 우리 사회가 조용할까? 하루 10만명이 발암 위험성을 되뇌며 약을 넘기고 있는 현실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하는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진료거부까지 했던 전국의 의사들이 이런 환자들의 아픔과 불안감을 헤아려본적이 있는지 묻고싶다.

공무원연금개혁 더는 미룰 수 없다

청론탁설
유 병 필
<언론인>

그토록 우려됐던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드디어 1000조 원을 넘어 1117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국가부채가 2212만 원이나 된다.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계속 지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만 596조3000억 원에 이른다. 이 연금은 적자가 날 경우 정부가 메워줘야 하기 때문에 고스란히 국가부채가 된다. 지난해 만해도 연금지급액의 20%에 해당되는 돈을 세금으로 내줬다.

지난해 국가부채규모는 2012년에 비해 215조2000억 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159조4000억 원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으로 내줄 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회계방식의 변경에 따라 140조 원 정도가 늘어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GDP(국내총생산)에 비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에 비해 아직 낮다는 한가한 시각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매우 위험스러운 요소가 많다. 첫째, 증가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빠르다. 2011년 773조5000억 원에서 불과 2년 만에 무려44.5%나 늘어났다. 둘째, 생산적인 분야도 있지만 비생산적인 증가 분야가 우세하다. 비록 국가기간 산업이라고 해도 무리수가 많다. 셋째, 각종 선거 때마다 포퓰리즘에 따라 선심성 무상복지공약을 경쟁적으로 남발해 국가부채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보면 우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부채관리의 해법을 달리 찾을 길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이들 두 연금은 일반국민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형평에 어긋난다. 지급개시연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지급규모가 두 배 이상 된다. 따라서 기회 있을 때마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논의는 개진되고 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수혜자인 공무원들이 자진해서 제 밥그릇을 줄일 리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여야를 떠나 정치적으로 선뜻 나설 수도 없어 딜레마에 빠져있다. 역대정권이 공무원연금개혁에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역시 미적거리고 있다. 결국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개혁의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나라가 그리스 등 유럽의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포토프리즘 — 광화문에 소풍나온 동심

지난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 유치원생들이 소풍을 나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직은 일교차가 큰 날씨에 두터운 옷을 입었지만 아이들의 밝은 표정에는 이미 따뜻한 봄이 찾아온 듯 하다.

/ 손진영기자 son@

최문기 미래부 장관의 굴욕

기자수첩
이 재 영
<경제산업부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때아닌 굴욕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최 장관은 지난 10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디지털케이블TV쇼' 개막식에 살짝 지각했다. 이날 행사에 비행기 시간 지연으로 인해 다소 늦게 도착한 것.

도착하자마자 최 장관은 축사에 나섰고, 축사 도중 사회자가 돌연 "예정된 일정이 있어 축사를 짧게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에 최 장관의 얼굴엔 당황스런 표정이 역력했다.

물론 당초 이날 오후 3시18분부터 초고화질(UHD) 전문채널 '유맥스(U-MAX)' 개국을 통한 본격적인 UHD 상용화 개시 행사가 예정됐지만 '오후 3시18분'이라는 것이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초대받은 최 장관을 기다려줄 수 없었나 하는 아쉬움도 남았다.

물론 초대받은 손님인 최 장관이 조금 더 여유있게 도착했다면 이런 해프닝은 없었겠지만 말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결국 뒤에 이어진 행사로도 연결됐다. 이날 오후 진행된 키노트 강연에서 김현석 삼성전자 부사장은 '아시아 연대, 함께 더 높이'라는 주제로 예정된 시간을 넘어서까지 연설을 진행했다.

김 부사장의 연설이 끝나자 사회자는 "개막식 행사에서 최 장관의 축사를 중간에 끊었더니 분위기가 좋지 않더라"면서 "다소 행사 시간이 조금 늦춰지더라도 연설자가 준비한 것을 모두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끊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최 장관의 굴욕은 행사 전반의 아쉬움으로 이어졌다. 최 장관의 시간 약속이 빚어낸 안타까운 촌극이었다.

사사키 아타루라는 젊은 철학자

인문학 산책
김 민 웅
<성공회대 교수>

"책을 읽고 텍스트를 읽는다는 것은 자신의 무의식을 쥐어뜯는 일이다." 무의식을 머리채처럼 어떻게 한다고? 독서를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하다니? 이 말은 책과 혁명에 대한 한 젊은 철학자의 선언이다.

그는 종교개혁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마틴 루터가 일으킨 대혁명이란 무엇인가? 성서를 읽는 운동이다. 루터는 무엇을 했는가? 성서를 읽었다. 성서를 읽고, 성서를 번역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책을 썼다. 이렇게 하여 혁명이 일어났다." 물론 성서를 읽어야만 혁명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다. 읽는다는 것이 가지게 되는 역사변혁의 힘에 대한 강조다.

1973년생이니 이제 마흔 하나인 사사키 아타루라는 일본의 한 젊은 철학자요, 문학비평가다. 그는 푸코, 라캉 등을 논한 <야전과 영원>으로 일본 사상계에 선풍을 일으키더니, 이 땅에서도 <잘라라, 기도하는 그 손을>이라는 책으로 지난 2년 사이에 조용하게 그러면서도 파도처럼 하나의 문화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읽는 것 자체가 혁명이라는 이 주장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보를 검색하는 작업에 몰두하는 시대에 책을 읽는 일이 점점 낯선 것이 되고 있는 때라, 그의 선포는 강렬한 울림이 되었다.

19세기 중반, 유럽은 문학의 발흥기였다. 그러나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경우는 많아봐야 30%를 넘지 못했다. 그 가운데서도 책을 집요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였다.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절망적이다. 그런 조건에서 발자크, 찰스 디킨슨, 도스토예프스키가 나왔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책으로 내주겠다는 곳이 없어 자비로 40부를 찍고, 지인들에게 7부를 겨우 나누어주었을 뿐이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수라도 "읽는 사람"들이 결국 일을 내고 말았다.

사사키 아타루는 니체의 다음과 같은 말에 주목한다. "언젠가 이 세계를 변혁시킬 인간이 찾아올 것이다. 그도 방황하는 밤이 있을 것이다. 그 밤 문득 펼쳐본 책 한 줄의 미미한 도움으로 변혁이 가능해 질 지 모른다." 독서는 바로 그런 존재의 충격적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문명의 최고 발명품이다. 문학과 철학이 현실에 대해 뭘 해줄게 있는가라는 물음은 이 발명품에 대한 무지에서 기인한다. 혹 쥐어뜯을 머리카락이 없다고 해도, 쥐어뜯을 무의식은 다들 가지고 있지 않은가?

목·어깨 통증, 두통, 만성 요통…디스크 질환 적신호!

일자목, 골반 불균형, 휜다리 등 체형 불균형 초기에 잡지 않으면 심각한 디스크로 진행

김도연(왼쪽) 강남초이스병원 교대점 원장과 가수 휘성. /강남초이스병원 제공

오랜 직장 생활로 늘 목이 뻐근하고 양쪽 어깨가 무거운 느낌을 받아온 30대 회사원 A양은 최근 두통과 불면증이 심해지면서 손 저림 증상이 나타나 회사 근처 한의원과 척추 전문병원을 찾아 신경성형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별다른 호전이 없어 유명 연예인들이 비슷한 증상으로 찾아 치료받았던 강남초이스병원 교대점에 내원했다.

주치의인 김도연 강남초이스병원 교대점 원장은 일자목이 오래돼 안면 비대칭과 거북목으로 변형됐다고 설명하며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후 두 곳에서 디스크 중기 질환이 발견됐다고 진단했다.

이후 A양은 병원에서 약물 요법이나 시술적 요법이 아닌 휘어지거나 틀어져 있는 골격구조를 손으로 바로 잡는 도수치료와 뼈와 근육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운동치료를 받았다. 주 2회씩 3개월을 치료받은 A양의 상태는 호전됐고 두통과 불면증도 사라졌다.

또 늘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하는 40대 남자 회사원 B씨는 요통과 함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에 불편함을 느껴 정형외과와 교정하는 곳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주변 지인의 추천을 받아 A양과 마찬가지로 강남초이스병원 교대점을 방문했다.

김 원장은 일자허리 및 골반 불균형으로 디스크가 중기까지 발전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요추 MRI 상 제4~5 및 제5요추~제1천추 중기 추간판 탈출증으로 B씨를 진단했다. 이후 김 원장은 요추 신경 치료 주사를 통해 간단하게 B씨를 치료했으며 B씨는 치료 후 병원의 척추 도수운동치료센터에서 요추 도수·감압·운동 치료를 일주일에 1~2회씩 3개월간 받았다.

◆환자 맞춤형 치료로 회복 빨라

이처럼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늘어나면서 만성 허리 통증 및 골반 통증, 일자목에 의한 두통이나 목 뻐근함, 만성 경추 통증 및 어깨 통증 증상 등을 호소하는 현대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치료보다는 가격만 비싸고 증상의 일시적인 호전만 가져오는 꼬리뼈 신경 성형술,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치료술, 추나 요법, 침 치료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수많은 유명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 그리고 세계인들이 치료받아 이름이 알려진 강남초이스병원은 근본적인 치료와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환자의 증상 및 질환에 따라 척추 전문의가 먼저 진료를 실시한다.

초기 및 중기 디스크 질환일 경우에는 아픈 부위에 간단히 신경 주사치료를 하고 증상이 심하거나 말기인 디스크 환자들에게는 히든싱어로 화제가 된 가수 휘성과 배우 윤계상이 치료받았던 강남초이스병원의 대표적인 디스크 치료술인 고주파 디스크 치료를 실시한다. 이 시술은 기존의 고주파 열 치료 또는 수핵 감압술과는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 직경이 작은 특수 내시경을 이용해 탈출된 추간판을 제자리로 밀어 넣는 치료법이다.

이와 함께 강남초이스병원은 환자의 질환·나이·증상에 따른 맞춤형 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환자 1명을 척추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4명이 전담하는 통합 진단·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척추 치료를 선진·체계화시켰다.

현재 강남초이스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본원 외에 여의도역, 홍대입구역 및 교대역 근처에 전문치료클리닉 및 척추관절 비수술치료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선 목, 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일자목·골반 불균형·휜다리·측만증 등)을 한다. 문의: 서울대 본원 02)875-2200·홍대점 02)336-2200·여의도점 02)786-2200·교대점 02)525-2900 /황재용기자

이대의료원 건강강좌·토크쇼

21일 이대목동병원서

이화여대 의료원(원장 이순남)이 오는 21일 이대목동병원 김옥길홀에서 이대여성암병원과 여성건강증진센터 개소 5주년을 기념한 건강강좌와 명사 초청 토크쇼를 개최한다.

김윤환 부인종양센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건강강좌에서는 ▲유전성 유방암이란?(이안복 유방암·갑상선암센터 교수) ▲똑똑한 건강 이야기(전혜진 건진의학과 교수) ▲뇌건강과 기억력 증진(정지향 신경과 교수) ▲하버드식 부인암 예방법(주웅 부인종양센터 교수)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

건강강좌에 이어 열리는 토크쇼에서는 이숙경 영화감독 겸 줌마네 대표가 사회를 맡았다. 유인경 경향신문 선임기자, 문병인 유방암·갑상선암센터장 등도 토크쇼에 참여한다.

별도의 사전 접수 없이 무료로 참석이 가능한 행사에는 AIA생명, 청호나이스, 토다이 목동점 등이 후원사로 참여하며 의료원은 참가자에게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원은 이대여성암병원과 여성건강증진센터 개소 5주년을 맞아 '여성을 행복하게, 사회를 건강하게'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샘 렌보그 박사 "건강 위해 영양 보충해야"

"100세 시대 건강하게 잘 늙기(Well Aging) 위해서는 부족한 영양소를 충분히 보충해야 한다."

뉴트리라이트 건강연구소 샘 렌보그(사진) 박사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 이와 같이 말하며 건강한 삶을 위한 영양소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건강을 저해하는 요소로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과 외부 환경 변화 등을 지적하며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의 신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화 현상을 지연시켜주는 항산화 작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산화 작용의 핵심 키워드는 식물영양소로 식물이 해충이나 미생물, 자외선 등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방어 물질인 식물영양소가 함유된 채소 및 과일 섭취가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식물영양소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럴 경우에는 보충제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뉴트리라이트는 한국암웨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로 식물영양소를 주원료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샘 렌보그 박사는 뉴트리라이트 창립 80주년을 기념해 방한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유통업계 '서바이벌 행사' 치열

최근 방송에는 패션 디자이너·요리사·작곡가 등 각 분야별 다양한 형태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베이비페어 주최사인 베페가 오는 27일까지 실시하는 '2014 베페 파워 에디터'는 수준 높은 육아용품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육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본선대회는 1차 온라인 심사를 거쳐 선발된 총 120명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임신·출산·육아·교육 각 분야별 카테고리의 상품들을 직접 체험하고 사용 후기를 SNS에 올리면 된다.

롯데리아는 오는 14일 자정까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롯데리아 글로벌 원정대 4기'를 모집한다. 마케팅 미션을 서바이벌 형태로 수행하면 우수 팀을 선정해 해외 탐방의 기회를 제공한다.

2차 미션인 온라인 미션을 통과한 20팀에게 3박5일간의 베트남 원정을 보내주고 최우수팀 3팀에겐 총 3500만원 상당의 글로벌 탐방 기회를 준다.

아웃도어 브랜드 영원이 오는 26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제3회 울트라 랠리'를 실시한다. 이 대회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자신의 기록을 측정하고 남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도쿄관광재단, 페이스북 오픈

한국어 팬클럽 개설

공익재단법인 도쿄관광재단(이사장 가미죠 키요후미)은 지난 1일 한국어 페이스북 페이지 '도쿄 팬클럽(Tokyo fan club)'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 페이지는 한국인 관광객에게 도쿄의 관광 정보를 전달하고 해외 여행지로서의 도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도쿄의 최신 관광 자원과 매력을 계속적으로 알릴 목적으로 개설됐다. 쇼핑·먹거리·관광·문화·이벤트·계절 정보 등 도쿄의 매력과 정보를 꾸준히 전달하고 많은 사람들과 상호 소통하는 페이지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5월과 9월 중 캠페인도 계획하고 있다.

도쿄관광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해 가며 도쿄의 매력을 알리고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외국인 여행객 유치에 한층 더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주소 : www.facebook.com/TokyoFanClub.kr /정혜인기자 hijung0404@

르네상스 서울호텔, 가족사랑 이벤트

르네상스 서울 호텔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메이 러브 블라섬(May love blossom)'을 주제로 여러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맨해튼 그릴' '카페 엘리제' '이로도리' '가빈' '사비루' 등 5개 레스토랑이 참여한다.

5월 5일 어린이날 '뽀롱뽀롱 뽀로로와 함께' 이벤트에서는 레스토랑에서 뽀로로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며 어린이 손님에게 딸기 스무디를 증정할 예정이다. 5월 8일 어버이날 진행되는 '부모 愛게 잘하자!'에서는 3대가 함께 방문할 시 2명의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가수 현철의 디너쇼도 열린다. 5월 15일 스승의 날 은사와 함께 동반 방문 시 30%를 할인해주는 '선생님 사랑해요' 이벤트도 마련됐다. 5월 19일 성년의 날을 겨냥한 '특★한 나를 위하여'는 21살 성년이 된 고객에게 장미 한 송이와 알 스타일(R-style) 초콜릿 네 조각을 증정한다. 신분증 제시 시 본인에 한해 2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문의 및 예약: 맨해튼 그릴 02)2222-8637·카페 엘리제 02)2222-8635·이로도리 02)2222-8659·가빈 02)2222-8657·사비루 02-2222-8655 /김학철기자

입소문 난 '맛집'…그 비결은?

맛과 멋으로 승부 매장 세련미도 중요

인터넷의 발달로 검색만 해보면 맛집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들 맛 집은 별도로 스타 마케팅을 하지 않고 입소문만으로 유명해졌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들 업소들은 외식에서 가장 중요한 '맛'은 기본이고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는 색다른 멋을 강점으로 하고 있다.

대구에서 큰 인기를 끌던 핫플레이스 '미즈컨테이너'는 최근 서울 강남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미즈컨테이너는 식사와 술을 함께 즐기기에 제격인 경쾌한 맛집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공사현장의 콘셉트로 훈남 종업원들이 고객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음식을 서빙한다. 큰 음악소리와 종업원들의 우렁찬 구령,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고객의 마음을 들뜨게 한다. 주문 후에는 진동벨 대신에 번호가 적힌 안전모를 주며 톡톡 튀는 매력을 보여준다. 직영점(6곳)만 운영 중이며 젊은 여성에게 입소문이 나 강남 2호점, 홍대점까지 오픈 했다.

아이스크림 업체인 소프트리는 지난해 가로수길에서 오픈 한 이래 엄청난 인기를 끌며 핫플레이스 곳곳에 분점이 생겨나고 뜨거운 인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상하목장 우유로 만든 쫀득한 질감의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보기만 해도 달콤한 '허니칩'을 토핑으로 얹어준다. 망고·고구마·초코볼 등 토핑을 선택 할 수 있으며 취향에 맞추어 콘·컵·소라빵에 담을 수 있다

30분 이상 줄을 서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진풍경이 이어지고 있다. 웰빙 코드와 소녀감성의 콘셉트로 여성들에게 잘 어필된 예이다. 최근에는 이와 비슷한 브랜드들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스쿨푸드의 경우 저렴한 길거리 분식 이미지에서 벗어나 프리미엄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현대적이고 세련된 감성을 더하여 분식의 퀄리티를 높였다

대표 메뉴는 꽃을 닮은 블루밍 마리. 한입에 들어가는 사이즈의 미니 김밥으로 많은 재료를 섞지 않아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게 해주며 모양 또한 앙증맞다.

무엇보다 빈티지한 우드월과 가구 그리고 위생적인 오픈 키친이 발산하는 카페처럼 아늑하고 독특한 매장 분위기가 스쿨푸드의 오늘을 있게 한 주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우수 中企 초특가 3D TV 출시 홈플러스는 스카이미디어와 공동기획을 통해 시중 200만원 대의 국내산 55형 3D Full HD LED TV를 자사 온라인몰에서 124만원(제휴카드 구매 시 10만원 할인)에 판매한다. 전국 위니아만도 물류 서비스를 활용해 주문 다음날 바로 제품을 무료 배송 및 설치를 해주며, 업계 최초로 구입 후 3년간 무상 A/S(패널 포함)도 실시한다. 5월 31일까지는 제휴카드 구매객에게 12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제공한다. /홈플러스 제공

봄철 아토피·피부염 환자 급증

유산균 식품 등 도움

건조한 날씨에 황사와 미세먼지까지 가세함에 따라 극심한 가려움을 유발하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연평균 104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증 아토피 피부염 입원 환자도 2008년 896명에서 2012년 1370명으로 1.5배나 증가했다.

아토피 피부염 발생 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 피부 장벽의 이상 등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환경문제로 인한 알레르기 발생과 면역체계 이상이 주를 이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런 가운데 피부의 거울이라고 불리는 '장 건강'이 중요시 되고 있다.

장에는 인체 면역 세포의 70~80%가 모여 있기 때문이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제품은 장 내 유익균을 증식시켜 면역력을 강화하고 아토피 피부염 등 피부 알레르기 증상 완화를 돕는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표 발효식품인 김치에 함유된 유산균들이 아토피 피부염에 효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쎌바이오텍은 김치에서 추출한 김치유산균 분말제품 '듀오락 지사랑'은 김치유산균 3종을 분말 형태로 만들어 한국인의 장 환경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한국형 유산균' 제품이라는 것이다.

또 쎌바이오텍의 '듀오락 ATP'는 알러지의 원인이 되는 알러젠을 모두 제거해 피부나 장이 예민한 어린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제품이라고 회사측은 강조했다. 실제로 순천향대학병원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아토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 실험에서 장 환경 관리를 통한 아토피 증상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는 것이다. /정영일기자

메트로신문 창간 12주년 기념

소프라노 신영옥과 함께하는 5월 어버이를 위한 음악회

지휘 | 여자경
바이올린 | 임지희
하프 | 김아림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14. 5. 8(목)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 metro 메트로신문사
주관 |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입장권
R석 20만원 / S석 12만원 / A석 7만원 / B석 5만원 / C석 2만원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합니다.

공연예매
SAC Ticket
www.sacticket.co.kr 02-580-1300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 1544-1555

공연문의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사무국
031-392-6422
www.primephil.net

shin young ok

꽃샘추위·벌레 막는 '바람막이' 패션

기능성 강조 아웃도어 인기

봄맞이 등산을 계획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이상고온과 꽃샘추위, 봄비가 공존하는 봄 날씨에는 자칫 감기에 걸리기 십상이다. 최근 아웃도어 업계는 기능과 디자인을 겸비한 바람 막이 재킷을 줄줄이 출시하고 있다.

20도를 웃도는 이상고온 속 산행을 즐길 땐 땀을 즉각적으로 배출시켜주는 하드쉘 재킷이 필수다. GE사의 이벤트 멤브레인 기술인 드라이 시스템이 적용된 로우알파인의 바람막이 재킷은 특허받은 기공구조 섬유가 특징이다. 체열이 상승하는 부위에 환기와 통풍 시스템을 적용, 통기성은 물론 적정 수준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바람막이 선택 시 내구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특히 마찰이 많은 부위에 고온 접착 기술인 웰딩, 핫멜트 기법 등이 사용된 바람막이를 선택하는 것이 봉제 뜯김을 방지할 수 있다.

발수 및 방수 기능과 자외선이 많은 봄날이기에 UV차단 등의 기능성이 있는 제품도 눈여겨보는 것이 좋다. 이때 휴대가 편하도록 가벼운지도 따져봐야 한다.

바람막이 재킷을 일상에서도 활용하고 싶다면 모던한 디자인의 아이템이 적합하다. 톤다운 된 컬러감과 모던한 디자인의 재킷은 오피스룩부터 캐주얼룩까지 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튀지 않는 색상을 고르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아이더는 안티버그(Anti bugs) 소재를 적용해 해충으로부터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바람막이 재킷 2종을 출시했다.

이 재킷은 국화류에서 추출한 천연 방충 성분인 '퍼메트린(Permethrin)'을 섬유에 주입해 야외활동 시 진드기를 비롯한 각종 해충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해준다고 업체 측은 전했다.

피버그린은 초경량 헤타(HETTA) 방풍재킷을 최근 출시했다. 고밀도 소재를 사용해 윈드 스토퍼 기능은 물론 보온성을 갖춰 일교차가 큰 날씨에도 체온 유지에 좋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인체공학적 3D 소매 입체 패턴으로 자유로운 팔 동작 가능 한 것도 특징이다.

이젠벅이 최근 선보인 하이브리드 재킷 '윈드스쿠츠'는 고기능 스트레치 저지 소재를 전면에 사용해 아웃도어 활동에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특히 야외 활동 시 바람과 마찰이 많은 앞판에 특수 방풍 소재를 덧대 변덕스러운 봄 날씨에 대응하기 좋다고 업체 측은 강조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뷰티업계 '지구의 날' 캠페인 열전

4월 22일 '지구의 날'을 앞두고 뷰티업계가 지구를 위한 착한 프로젝트 준비에 고심이다. 최근에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을 소비자와 공유할 수 있는 참여 형태의 캠페인을 마련해 사회적 의식과 공감대 형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프리메라는 스케이터 이규혁, 가수 김예림 등 '청춘 멘토'가 되어줄 5인의 프리메라 프렌즈와 함께 '청춘, 그리고 지구야 힘내'를 진행한다. 올해는 소비자와 신진 예술가들의 재능을 뽐내는 '플리마켓'과 프리메라 프렌즈의 무료 '에코 콘서트'를 펼친다.

아베다의 경우 4월 한 달 어플리케이션 '빅워크'와 함께 특별한 기부 프로그램을 벌이고 있다. GPS를 기반으로 걸은 거리를 측정한 후 거리 대비 포인트를 산정해 10m에 1원씩 기부금이 적립된다.

또 이니스프리는 지난 10일까지 고객 참여형 디자인 콘테스트 '전국 에코손수건 대회'를 개최했다. 고객이 홈페이지에서 손수건을 디자인하고 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3점의 작품을 뽑아 에코손수건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지난 13일까지 진행된 오리진스의 '공병 수거 이벤트'는 브랜드와 관계없이 다 쓴 화장품 용기를 들고 매장을 방문해 5만원 이상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플랜트스크립션 아이 트리트먼트 정품'을 무료로 증정했다. 멜비타(위 사진)는 '공병이벤트'를 4월 한 달 동안 매장에 스킨케어 제품 공병을 가져오는 고객에게 아르간 오일·로즈 넥타 크림·로즈 넥타 아이젤로 구성된 오가닉 베스트 3종 체험 키트를 증정한다.

닥터 브로너스(아래)는 21일까지 본인의 SNS에 이벤트 내용을 공유한 참가자 중 100명을 추첨해 지구의 날 키트를 준다. 키트 안에는 매직솝·매직 토너·씨드페이퍼가 들어있으며 씨드페이퍼의 씨앗을 고객이 직접 키워볼 수 있다. 키엘의 '그린 이벤트'는 키엘 제품을 5만원 이상 구매하고 환경 보호 활동에 1000원을 기부하면 키엘 로고가 새겨진 미니 화분을 선물 받을 수 있는 행사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라면이 '10원' 아이파크백화점은 서울 용산 패션관에서 라면 60여종을 모은 이색 라면 전시회 '대한민국 라면 전시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20일까지 열리며 13일에는 선착순 50명에게 50년전 가격인 10원에 라면을 판매했다. /아이파크백화점 제공

"음악이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하트하트오케스트라, 크레디트 스위스 후원 음악회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아트홀 대극장에서 '봄과 함께 찾아온 감동의 무대'가 펼쳐졌다.

지난 2006년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이사장 신인숙)이 창단한 국내 최초의 발달장애 오케스트라인 하트하트오케스트라(지휘 김근도)와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회사 크레디트 스위스(한국대표 이천기)가 함께한 자선음악회 'ONE HEART CONCERT'의 두 번째 무대가 성황리에 공연됐다.

특히 이번 음악회에는 지난해 4월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www.heart-heart.org) 홍보대사에 위촉돼 활발한 나눔 활동을 해 온 가수 더원이 협연자로 무대에 서 하트하트오케스트라 단원과 완벽하게 호흡을 맞췄다는 평을 들었다.

하트하트재단 홍보대사 가수 더원(사진 중앙)과 하트하트오케스트라 단원들이 2회 자선음악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트하트재단 제공

이날 공연은 팝 피아니스트 윤한의 사회로 트럼피터 성재창, 나눔앙상블(바이올린 최재원·임지희, 비올라 문명환, 첼로 최정은) 등 정상급 연주자들의 재능기부로 다양한 레퍼토리와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였다.

이번 자선 음악회는 크레디트 스위스가 펼쳐온 문화·예술 사회공헌 활동의 가시적 성과로도 화제가 되고 있다.

1996년 한국에 설립된 크레디트 스위스는 선도적인 외국계 투자은행. 문화·예술에 대한 후원으로 뉴욕필하모닉·시드니심포니·루체른페스티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하트하트오케스트라를 돕고 있다.

/정영일기자 prms@

국내 캔 햄 승자는…‘스팸’

맛·칼로리 제각각

간편한 반찬식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는 제품이 있다. 바로 캔 햄이다. 특히 나들이나 캠핑등의 필수품 자리 잡고 있는데다 반찬뿐만 아니라 식사 대용, 술안주로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식품업계는 저마다 캠햄 제품을 내놓고 소비자들의 입맛을 잡기위한 마케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제조·시판되고 있는 캔 햄 제품을 비교해 순위를 정한 자료가 나와 관심을 끈다.

메뉴판닷컴은 최근 자사의 회원 인터뷰, 편의점 및 대형마트 시장조사, 온라인몰 판매, 언론 보도내역 등을 고려해 CJ제일제당의 ‘스팸 클래식’, 동원 ‘리챔’, 롯데햄 ‘로스팜 엔네이처’, 청정원 ‘우리팜 델리’ 등 4개사의 캔 햄 제품을 비교 평가했다.

먼저 이 회사 회원 1306명을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CJ제일제당의 스팸 클래식이 1위를 차지했다.

투표에서 CJ제일제당 스팸 클래식은 전체 투표자 가운데 562표(43%)를 얻어 1위에 올랐다. 뒤를 이어 366표(28%)를 얻은 동원 리챔, 287표(22%)의 롯데햄 로스팜 엔네이처, 91표(7%)를 얻은 청정원 우리팜 델리가 2~4위에 올랐다.

이들 4개사 제품의 칼로리 분석 결과 1g당 3.5㎉인 CJ제일제당 스팸 클래식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가장 낮은 동원 리챔(1g당 1.4㎉)의 2.5배에 달했다. 주 원료는 롯데햄 로스팜 엔네이처가 유일하게 국내산만 사용했으며 동원 리챔은 수입산으로만 제조됐다.

제품별 시식 평가 결과 100% 우리 한돈의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롯데햄의 로스팜 엔네이처는 쫄깃함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고 스팸과 유사한 맛으로 짜지 않아 더욱 마음에 든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다리 살로 만들어 부드럽고 촉촉한 맛 동원 리챔은 살짝 느끼한 맛과 단맛이 동시에 느껴진다는 평을 들었다.

가장 오래된 역사로 캔 햄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CJ제일제당의스팸 클래식은 익숙한 맛이라 다른 제품들과 확연히 맛이 구분된다는 평을 들었다.

알루미늄 호일을 벗겨내는 이지필 방식으로 손 다칠 염려가 없는 청정원의 우리팜 델리는 크게 차별화되지는 않지만 무난한 맛으로 누구나 즐기기 좋으며 기름기가 가장 적고 고기 본연의 맛이 많이 느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브라질 월드컵’ 공짜관람법

다양한 이벤트 풍성

2014 FIFA 브라질 월드컵이 다가오면서, 국내에서도 다양한 월드컵 마케팅을 쏟아내고 있다.

먼저 코카콜라나 맥도날드 등 FIFA 월드컵의 공식 후원사는 월드컵 때마다 후원사만이 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특별한 프로모션을 펼쳐오고 있다.

코카콜라사는 브라질월드컵 축제의 현장에 직접 참석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할 원정 응원단 100명 등의 경품을 내 건 ‘코카콜라와 함께 브라질 월드컵 가자’ 소비자 프로모션을 5월 16일까지 벌인다. 총 3박 7일의 일정으로 6월 20일 브라질로 떠나며 한국 국가대표팀의 예선 2차전인 알제리전을 현지에서 직접 관람하고 응원전을 펼친 후 26일 귀국한다.

프로모션 참여 방법은 ‘코카-콜라 월드컵 프로모션 패키지’의 캔따개 뒷면이나 PET 제품의 라벨 뒷면에 있는 코드를 이벤트 페이지에 입력하면 즉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맥도날드는 이번 브라질 월드컵을 기념해 오는 19일 서울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맥도날드 어린이 축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참가 축구팀 어린이 중 추첨을 통해 한국대표로 이번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손을 잡고 경기장에 입장하는 ‘플레이어 에스코트’를 하게된다.

공식 후원사는 아니지만, 국내 축구팬을 위한 기업들의 행사도 활발하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오는 18일까지 국내 축구팬들을 위해 2013/2014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 관람과 브라질월드컵 관람을 경품으로 내건 ‘나만의 방법으로 공짜 브라질 월드컵 GO!’ 이벤트를 벌인다.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월드컵을 공짜로 즐길 수 있는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SC은행 SNS에 기재하면 된다.

롯데제과는 월드콘 신제품 출시와 함께 5월 20일까지 인기그룹 엑소(EXO)를 모델로 ‘월드콘 먹고 브라질 가자’ 이벤트를 진행한다. 월드콘 뚜껑 안쪽에 ‘당첨’이라고 나오면 경품을 전달하는 행사로, 1등(10명)에게는 월드컵 기간에 브라질 월드컵을 관전하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브라질 여행권을 증정하는 등 총 2억원에 달하는 상품을 준다.

/정혜인기자

과거로의 여행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이 오는 20일까지 우리나라 유통역사를 시대별로 볼 수 있는 근현대 유물전을 연다. 행사에선 1970년대 오리온 선물세트(과자)·이쁘이 비누·미풍(조미료)·설탕, 1980년대 통조림 캔세트·내쇼날 선물세트(플라스틱 용기)·마주앙(주류) 등 이미 사라졌거나 리뉴얼된 제품과 신세계백화점의 시대별 광고 카달로그도 공개됐다. 왼쪽부터 고두심(1979년), 김혜수(2000년), 손태영(2001년). /신세계백화점 제공

크로커다일레이디, 뮤지컬 고객 초청

패션그룹 형지의 여성 캐주얼 브랜드 크로커다일레이디는 오는 30일까지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순수 창작 가족뮤지컬 ‘두리둥실 뭉게공항’ 뮤지컬 고객 초청 이벤트를 벌인다.

홈페이지에 ‘두리뭉실 뭉게공항’을 보고 싶은 이유를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10명(1인 2매)에게 공연 티켓을 증정한다.

이 회사 사업본부장 배성호 상무는 “크로커다일레이디는 ‘대한민국 모든 여성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브랜드’로 그동안 가족이 함께 할 수 이벤트를 꾸준히 기획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고객 초청 이벤트를 시작으로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브랜드로써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더 자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학철기자

샌들도 양말도 패션

포인트가 관건

‘패션 금기’로 여겨졌던 샌들과 양말의 조합이 국내외 패셔니스타를 통해 시즌 트렌드로 떠올랐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일찍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는 여름 탓에 경쾌한 샌들 패션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선 대부분의 샌들은 복숭아 뼈 아래의 길이로 떨어지는데 이에 매치하는 양말은 복숭아 뼈를 살짝 덮는 길이가 적당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종아리까지 양말을 올려 신을 경우에는 다소 둔탁한 느낌을 주며 다리길이가 짧아 보일 수 있다.

샌들에 양말을 매치할 땐 하의 선택도 신중해야 한다. 활동적이면서 도회적인 느낌을 연출하고 싶을 때는 긴 바지의 밑단을 살짝 접어 올리면 되고 여성스럽고 발랄한 이미지를 원할 경우 미니스커트나 쇼트 팬츠를 매치하면 좋다.

특히 캐터필라의 위브먼트 샌들 등 발목을 살짝 덮는 아이보리색상의 글래디에이터 스타일은 파스텔 톤의 팬츠와 매치하면 보다 세련된 연출이 가능하다고 업체측은 설명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대세 중년? 책임감만 늘었죠"

배우 이성민(46)에게 지난 2년간은 인생의 격변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무명의 연극배우로 활동하던 그는 2012년 드라마 '골든타임'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대세 중년'으로 급부상했고, 10일 개봉한 '방황하는 칼날'로 스크린 첫 주연 신고식까지 치렀다. 지금과 같은 유명세에 대해 어린 배우라면 한창 들떠 있겠지만 데뷔 27년 차의 베테랑인 이성민은 차분하고 담담한 말투로 "책임감이 많이 생기는 시기"라며 조심스러워했다.

◆ 데뷔 27년 스크린 첫 주연

연극배우 출신으로 드라마 '파스타' '더 킹 투하츠' '골든 타임' '미스코리아', 영화 '변호인'에 이르기까지 선굵은 남성부터 익살스러운 모습까지 다양한 캐릭터를 안정적이고 깊이 있게 연기했다.

첫 스크린 주연작인 '방황하는 칼날'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이성민은 "첫 주연이라는 게 부담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묻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려고 한다"고 너스레를 떨며 "영화가 부끄럽지 않게 나와 활력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첫 주연작, 부끄럽지 않게 나와
유명세 탄 후 불편해진 것 많아
정재영은 의지 많이 되는 동생

'방황하는 칼날'은 한 순간에 딸을 잃고 살인자가 돼버린 아버지 상현(정재영)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미성년자 법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화제작이다. 이성민은 직업 윤리와 인간적 연민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하며 상현을 추격하는 형사 억관(이성민)을 열연했다.

그는 실제로 사춘기 딸을 가진 입장이라서 억관에게 더욱 몰입했다고 했다.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을 "지켜보겠다"고 말하는 억관은 미성년자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법 제도가 전부가 아니라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딸이 지금 사춘기인데 옆에서 보면 말은 하지 않아도 고통스러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 40세가 넘으면서 시력이 원시가 돼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는데 몇 배의 신체적 변화를 겪는 청소년들은 심정이 오죽할까 싶죠. 그들이 성숙해지면서 겪는 고통을 부모와 정부 단체, 선생님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가이드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성민은 상현 캐릭터에도 깊이 공감했다. 그는 "만약 내가 상현의 입장이라면 억장이 무너지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리고 (딸의 복수에 나서는) 상현과 같은 행동을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영화 '방황하는 칼날'의 이·성·민

◆ 영화계서 입지 넓힌다

지금까지 주로 안방극장에서 사랑받았다면 '방황하는 칼날'를 계기로 이제는 영화계에서도 입지를 넓히고 있다. '빅매치'에서 주연을 맡아 이정재·신하균·보아 등 톱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하반기 개봉 예정작인 '군도: 민란의 시대'에도 출연한다.

그러나 승승장구 행보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성민은 들뜬 표정을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지금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정해주죠. 그러나 스트레스가 생기는 시기이기도 해요. 책임감의 무게가 커지니까요. 유명세를 탄 후 불편해진 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7년차 배우지만 아직도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힘들다고 했다. 그는 "무대에 오랫동안 섰는데도 적응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성격 때문에 평생 누군가에게 먼저 친구하자고 손 내밀어 본적도 없다"면서 "다행히 이번에 호흡을 맞춘 (정)재영이는 먼저 손 내미는 스타일이라 금세 친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나이는 나보다 두 살 어리지만 의지가 많이 되는 동생이에요. 덕분에 현장에 있는 게 즐거웠죠. 연기에 대해서도 자극을 받았어요. 전 연기할 때 계산하고 맞추는 스타일인데 재영이는 자신을 다 열고 몰입해 자연스럽게 연기하더라고요."

인기에 대해 말할 때는 지나치게 담담했지만 야구에 대해 말할 때는 흥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얼마 전 영화 홍보 차 정재영과 함께 프로야구 LG트윈스의 경기에 시구·시타자로 나선 당시를 떠올렸다.

"소극적인 성격인 제가 재영이 덕분에 마운드에 설 용기를 냈어요. 10대 때 야구선수가 꿈이었어요. 또래 친구들 중에서 공을 가장 멀리 던졌죠. 이번에 잠실구장에 선 게 꿈만 같았어요. 무엇보다 그렇게 많은 관중이 있는 큰 무대에 선 게 처음이라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떨렸죠."

이성민의 도전은 마운드에서 그치지 않는다. '군도: 민란의 시대'에서 액션 영화에 처음 도전한 그는 "처음엔 긴장을 많이 했지만 액션을 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기회가 된다면 액션 영화를 다시 해보고 싶다"면서 "그러나 그 전에 관객이 '방황하는 칼날'을 많이 봐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사진/이완기(라운드테이블)·디자인/박은지

www.HanaTour.com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호주 런 런 런 런to호주 | TOURISM AUSTRALIA 호주정부관광청 | Queensland Where Australia Shines | MELBOURNE VICTORIA AUSTRALIA

호주만큼 멋진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Run To Australia

꿈꾸던 휴가가 현실이 되는 멋진경험,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Honeymoon

시드니 ★ 관광+스냅촬영 6일
1,990,000부터 ● 시드니(4)
● 50만원 상당의 허니문 스냅촬영 무료 포함, 미니액자 제작

멜번 ★ 그레이트 오션로드 6일
2,490,000부터 ● 멜번(4)
● 커피향 가득한 멜번 시내 카페투어, 오페라하우스 내부관람

골드코스트 ★ 커럼빈+요트 6일
2,490,000부터 ● 골드코스트(4)
● 골드코스트 5성급 호텔, 헬기투어, 오페라하우스 내부관람

탕갈루마 ★ 난파선투어 6일
2,850,000부터 ● 골드코스트(4)
● 디럭스룸 업그레이드, 야생돌고래 먹이주기, 샌드사파리투어

당사는 관광진흥법, 소비자보호법,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여행상품 가격포함 내역 :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경비 포함 (단, 개별여행 상품은 미적용) 유류세는 상기상품 가격 외 별도지불 하셔야 하며, 항공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선택경비 : '선택관광경비'나 '안내원봉사료' 등은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 현지에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출발일/출발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바랍니다.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 (주)하나투어 ■ 교통편 : 항공/버스/훼리 ■ 하나투어 : 일반여행업 등록 제 26004-1993-6(서울시 종로구청) /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최소 출발인원 : 10명
■ 하나투어리스트 : 일반여행업 등록 2002-3호(서울시 종로구청) / 영업 보증보험 5억 5천만원 가입 ■ 관광 불편신고 Tel. 1644-0166(ARS 안내번호 9번) ■ 숙소 : 2급 호텔 이상
※상기 상품의 행사는 (주)하나투어에서 주관합니다.

HNT 하나투어리스트
허니문 상담팀 02) 2127-1234

YG패밀리 총출동 초대형 K-팝 파티

빅뱅·2NE1 등 소속가수 합동공연
10만 관객 몰려… 도쿄돔서도 개최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소속 가수들이 총출동해 거대한 K-팝 파티로 일본 팬들을 사로잡았다.

빅뱅(**위 오른쪽 사진**)을 비롯해 2NE1(**위 왼쪽**)·에픽하이·이하이·위너 등 YG 소속 가수들은 12~13일 일본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2014 YG 패밀리 콘서트'를 개최해 10만 명의 팬들을 불러모았다. 전날 중국 상하이에서 월드투어의 첫 해외 무대를 연 2NE1은 하루 만에 오사카로 건너와 콘서트의 오프닝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2NE1은 '크러시'와 데뷔곡 '파이어', 정규 2집 타이틀곡인 '컴 백 홈'과 '너 아님 안돼'로 초반부터 객석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이어 등장한 신인그룹 위너는 '고 업' 일본어 버전과 2NE1의 '그리워해요'를 자신들만의 버전으로 선보였다.

위너의 바통을 이은 에픽하이는 '플라이' '러브 러브 러브' '돈트 헤이트 미' 등으로 현지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에픽하이에 이어 빅뱅이 등장하자 공연장은 황금빛 물결로 뒤덮였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일본 6대 돔 콘서트를 통해 77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한 바 있는 빅뱅은 노련한 일본어로 관객들과 호흡하며 '하루하루' '블루' '판타스틱 베이비' 등 히트곡으로 무대를 이어갔다.

일본 무대에 처음 오른 이하이는 '로즈'와 '1,2,3,4'를 부르며 더욱 성숙해진 무대매너로 현지 팬들의 눈길을 사로 잡았다.

이날 YG패밀리 콘서트의 하이라이트는 소속 가수들끼리의 콜라보레이션 무대였다. 위너와 윈 B팀은 함께 경쟁했던 서바이벌 프로그램 '후 이즈 넥스트 :윈'의 마지막 미션이었던 '저스트 어나더 보이' 무대를 함께 꾸몄고, 지드래곤과 씨엘은 '나쁜 머슴애'와 '멘붕'을, 빅뱅 탑과 위너의 송민호·2NE1의 산다라는 '둠 다다'를 함께 불러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총 40곡을 선보인 이번 콘서트의 마지막 무대에서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비롯해 2NE1의 '고 어웨이', 빅뱅의 '판타스틱 베이비' 등 YG 소속 대표가수들의 히트곡이 앙코르로 울려퍼졌다.

'2014 YG패밀리 콘서트'는 오사카 공연에 이어 다음달 3~4일 도쿄돔에서 개최된다. 이후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버나드 박 'K팝스타3' 우승 JYP행

버나드 박이 'K팝스타 3'의 우승을 차지했다.

13일 SBS '일요일이 좋다-K팝스타 3' 결승전에서 버나드 박은 1·2차 라운드 심사위원 점수 총합 573점으로 샘김의 점수 577점보다 뒤졌으나 시청자 문자 투표에서 역전하며 우승을 거머쥐었다.

우승 혜택으로 자신이 원하는 회사와 일할 수 있게 된 버나드 박은 JYP를 선택하며 "이제 새로운 시작을 기대한다. 지켜봐 달라"고 우승소감을 전했다.

이날 결승전은 심사위원 미션 라운드와 우승 후보들의 자유 선곡으로 꾸며진 두 개 라운드의 총점 60%에 시청자 문자 투표 40%를 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버나드 박은 1차 라운드에서 '가요를 불러달라'는 심사위원의 주문에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를 선택했다. 심사위원들은 "한국말이 서툴렀던 버나드 박이 가요를 잘 부르기 시작했다"고 높이 평가하며 총점 286점을 매겼다.

자유선곡 무대에서는 알켈리의 '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를 선택했으나 목 상태가 좋지 않아 심사위원들로부터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선 무대에서 샘김이 스팅의 '잉글리시맨 인 뉴욕'을 불러 299점을 기록해 2차 라운드에서 287점을 받은 버나드 박이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하지만 생방송 시청자 문자 투표로 만회의 기회를 얻은 버나드 박은 역전에 성공해 최종 우승자가 됐다.

/김지민기자 langkim@

'K팝스타3' 최종우승자 버나드 박
/SBS 방송 캡쳐

씨엔블루, 류현진 테마음악 선물

씨엔블루가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을 위한 테마 음악을 선물했다.

씨엔블루는 류현진의 이번 시즌 공식 테마 음악인 '류 캔 두 잇'을 만들었고, 이 곡은 이번 시즌 내내 류현진이 홈 경기에 등판할 때마다 미국 LA 다저스타디움에 울려퍼진다. '류 캔 두 잇'은 씨엔블루 정용화의 자작곡인 '원 타임'을 재편곡하고 류현진에 맞게 가사를 만든 곡이다. 곡 초반 아리랑 멜로디와 노래 전체에 어우러진 아리랑을 테마로 한 기타 리프가 더해진 한국적인 선율의 곡이다.

한국 밴드의 음악이 미국 야구장에 울려 퍼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K-팝에 대한 해외 팬들의 관심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류현진의 국내 매니지먼트사 에이스펙코퍼레이션의 유현수 대표는 "류현진이 평소 씨엔블루 음악을 즐겨 들어 이들의 에너지 넘치고 젊은 음악이 류현진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됐다. 씨엔블루는 월드투어로 세계적인 위상을 높이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밴드"라고 테마곡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류현진의 미국 진출 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씨엔블루는 "멤버들 모두 류현진 선수의 팬이다. 류현진 선수의 선전을 기원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시즌 테마곡을 만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순호기자

포미닛 걸그룹 첫 유럽 단독 공연

그룹 포미닛(**사진**)이 여성 그룹으로는 최초로 유럽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포미닛은 다음달 2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2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포미닛 팬 배시 인 유럽 2014'라는 이름으로 공연한다. 이들은 1000석 규모로 개최되는 스페인과 스웨덴 공연 외에도 다양한 유럽 국가들에서 추가 공연을 열 예정이라고 소속사는 밝혔다.

포미닛은 개성 강한 비주얼과 강렬한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바탕으로 데뷔 초부터 유럽 스타일의 K-팝 그룹으로 해외 팬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이들은 힘 넘치고 톡톡 튀는 느낌의 퍼포먼스와 음악으로 인기를 얻어왔다.

/유순호기자

연상녀에 빠진 월화 안방

'밀회' 이어 '마녀의 연애' 조카뻘 연하남과 연애 다뤄

월·화요일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연상녀·연하남을 소재로 한 드라마들이 연이어 안방극장을 달군다.

JTBC·tvN의 월화극 '밀회'(왼쪽 사진)와 '마녀의 연애'(오른쪽)는 극중 남녀 주인공의 나이차이가 각각 20살, 14살로 '이모뻘' 연상녀와 연하남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두 드라마 모두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남녀의 사랑이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소재만 유사할 뿐 드라마 장르부터 캐릭터, 이야기 구성까지 모두 다르다.

'밀회'는 비리와 음모로 가득 찬 클래식 음악계를 배경으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마흔 살 커리어우먼 오혜원(김희애)과 스무 살 연하 천재 피아니스트(이선재)의 환영받지 못하는 사랑이야기로 조금은 어두운 내용의 멜로드라마다.

유부녀 오혜원이 남편 강준형(박혁권) 교수가 제자로 키우는 이선재와 사랑에 빠진다는 자극적인 설정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안판석 PD는 키스신·베드신 등을 오히려 담담하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피아노 연주 장면 등을 애정신보다 더 야릇하게 그려내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로코퀸' 엄정화가 5년 만에 브라운관에 복귀작으로 선택한 '마녀의 연애'는 사랑보다 일이 우선인 '골드미스' 서른아홉 살 반지연(엄정화)과 겉으로 보기엔 씩씩하지만 첫사랑의 아픔으로 마음의 문을 닫은 스물다섯살 윤동하(박서준)의 사랑이야기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다.

'마녀의 연애'는 지난 2012년 방영된 '로맨스가 필요해'로 이미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연출력을 인정받은 이정효 PD가 연출을 맡아 드라마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PD는 지난 9일 오후 서울 논현동에서 열린 '마녀의 연애' 제작발표회에서 "아주 웃긴 드라마"라며 "우리 드라마는 웃기는 것만이 살길이다.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하고 있다"며 "다른 드라마 속 연상·연하 커플과는 좀 다르다. 좋은 배우들 데려다가 정말 많이 망가뜨렸다. 최대한 유쾌한 드라마가 되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고 '밀회'와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특히 '마녀의 연애' 애정신에 대해 이 PD는 "방송시간이 오후 11시"라며 "늦은 시간인 만큼 '19금'에 가깝게 그려낼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손헌수

김주연

개그맨, 미녀스타와 릴레이 열애

양상국·천이슬 이어, 손헌수·김주연 커플

남자 개그맨들의 열애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개그맨 손헌수가 개그우먼 김주연과 5개월째 열애 중이다.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MBC 공채 개그맨인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했다. 교제 중인 이들은 아직 결혼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손헌수는 2000년 MBC 11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허무개그'로 인기를 얻었고 '코미디하우스' '웃으면 복이 와요' '개그야' '코미디에 빠지다' 등에 출연하며 MBC 대표 개그맨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디지털 싱글 '다녀오겠습니다'를 발표하고 가수로 데뷔했다.

연인 김주연은 2006년 MBC 15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고 '개그야'의 인기코너 '주연아'를 통해 미녀 개그우먼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앞서 개그맨 양상국(아래 왼쪽 사진)과 천이슬(오른쪽)은 지난해 열애를 공식 인정하면서 예쁜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

양상국은 2007년 KBS 22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인간의 조건'에서는 촌놈 매력과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천이슬은 KBS2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2' 부부특집에 출연해 미모와 몸매로 시선을 사로잡은 신인 배우다. 12일 방송된 '인간의 조건' 여성 특집에 출연한 예능 유망주이기도 하다.

/전효진기자 jeonhj89@

MBC '나 혼자 산다' 남자 전용?

세태 반영 부족 비판

1인 가구 453만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싱글라이프를 보여주는 MBC '나 혼자 산다'가 남성 멤버만 출연한다는 시청자들의 비판에 부딪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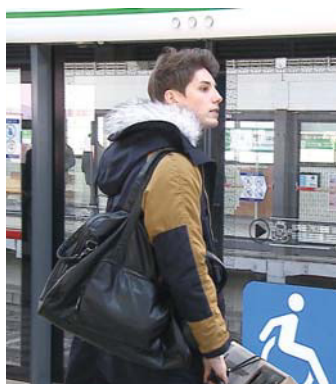
현재 '나 혼자 산다'의 멤버는 김용건·김민준·전현무·파비앙·김광규·데프콘·육중완 등이며 이들은 '무지개 회원'이라는 이름으로 1인 가구의 다양한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다.

제작진은 "연예계 종사자 3분의 1 가량이 1인 가구다. 기러기 아빠, 주말 부부, 독신남 등 각기 다른 이유로 싱글족이 된 스타들의 1인 가구 싱글 라이프를 다큐멘터리 기법으로 촬영해 생활 노하우,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철학 등을 그려낸다"고 프로그램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제작진의 설명대로 '나 혼자 산다'는 연령대, 국적, 주거 환경 등이 모두 다른 회원들로 구성돼 있어 언뜻 보면 다양성이 충족돼 보이나 모든 멤버들이 남성으로만 이뤄져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제작진은 '더 무지개 라이브' 코너를 통해 정규 멤버 외에 매회 새로운 '나홀로족' 게스트를 출연시키고 있다. 지난해 9월 '더 무지개 라이브'에 출연한 모델 장윤주는 싱글 여성의 건강하면서도 아기자기한 생활 모습을 보여줘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후 '나 혼자 산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여성 멤버도 출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무지개 회원으로 합류한 밴드 장미여관 보컬 육중완의 비위생적인 모습이 일부 시청자들의 거부감을 일으키며 "육중완 대신 장윤주·김나영 등 여성 멤버를 추가해 달라"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나 혼자 산다'는 지난 11일 시청률 8.2%(닐슨코리아 기준)를 기록하며 금요일 연예·오락 프로그램 2위 자리를 차지했다. /김지민기자

지난달부터 옥탑방 생활을 공개한 육중완, 지난해 9월 특집편에 출연해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은 장윤주, 외국인의 서울 적응기를 보여주고 있는 프랑스 청년 파비앙(왼쪽부터).

'… 부다페스트 호텔' 50만 돌파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 개봉 24일 만에 50만 관객을 넘었다.

13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개봉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전날 2만 8000명을 모아 박스오피스 5위에 올랐다. 누적 관객 수는 51만5475명을 기록했다.

작은 규모로 제작됐는데도 다양성 영화가 아닌 상업 영화로 신청한 이 영화는 개봉 첫주 전국 58개 스크린에서 상영됐다. 그러나 관객의 입소문을 타고 스크린이 200여 개까지 늘어났고 9일에는 박스오피스 2위까지 올랐다.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 '노아' 등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의 공세 속에서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지켰다는 점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다.

영화를 수입·배급한 이십세기폭스코리아는 "개봉 3주차임에도 대형 블록버스터들을 제치고 전체 예매율 2위로 역주행을 기록하고 있다"며 흥행을 기대했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세계 최고 부호 마담 D의 죽음을 둘러싸고 호텔 지배인 구스타브와 로비보이 제로의 이상한 모험을 그렸다.

/탁진현기자 tak0427@

글로 밥벌이 한다는 것

문화체육관광부의 2012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보면 분야별 종사자 중 월 수입 100만원 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문학'이었다. 무려 문학 종사자 전체 중 91.5%가 월수입 100만원 미만이란다.

이런 냉혹한 통계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여전히 작가를 꿈꾸는 사람은 많아 보인다. TV의 여러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노래 좀 한다는 사람들이 저렇게나 많았나 놀라지만 작가 업에 있어서도 글에 대한 욕망—그것이 간절한 자기표현이든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것이든—은 사그라질 줄 모른다. 그러나 꿈이 작가인 것과 목표가 '글로 밥벌이하기'는 사뭇 다른 얘기다. 취미로 글을 쓰는 건 행복한 일이지만 이것이 직업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예술이 줄 것만 같은 자유는 없다. 백여 명의 창작자의 일하는 방식을 인터뷰한 책 '리추얼'만 봐도 이름을 남긴 창작자들의 엄격함과 성실함에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글을 쓴다'는 말은 사실 얼마나 한량 같고 겉멋 들린 허세처럼 들리는가.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결과물이 제대로 나올지, 반향이 있을지 그 어떤 기약이 없어도 자기만의 규율을 만들어 1분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 예술가면 밤늦게 술과 담배를 하면서 글을 쓰거나 글이 안 풀리면 훌쩍 여행을 떠나거나 영감을 받아서 쓸 것 같지만 대부분의 창작자들은 아침형 인간으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엄수했다. 작가 레이먼드 챈들러는 말한다. "비가 오나 날이 맑으나 숙취에 시달리든 팔이 부러졌든, 그 사람들은 그저 매일 아침 여덟시에 자기들의 책상에 앉아 할당량을 채우지요. 머리가 얼마나 텅 비었건 재치가 얼마나 달리건, 그들에게 영감 따윈 허튼 소리."

통계 수치에서 문학 부문이 꼴등을 먹었다고 '원래 글 쓰는 건 돈이 안 돼'라며 낭만적 체념을 하지않았으면 좋겠다. '가난한 예술가 vs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양극단의 이분법으로 갈리지않았으면 좋겠다. 선입견이나 기존 통계를 전복시킬 만큼 더 부지런히 더 재미있는 글을 '프로'의 자세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칼럼니스트 askcatwoman@empal.com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8				
6	9	7	2		3			
3			5	6			9	
			8			6		9
8		2			4			
	5			4	1			7
			6		8	3	2	4
				3		9		

		8			4	2		6
					7			
		7	6					
	2	4		9				5
	5	9		7		3	4	
1				8		9	2	
					2	8		
			1					
2		6	9			4		

스도쿠 정답

1	2	5	4	8	9	7	3	6
6	9	7	2	1	3	4	8	5
3	4	8	5	6	7	1	9	2
7	3	4	8	2	5	6	1	9
5	1	9	3	7	6	2	4	8
8	6	2	1	9	4	5	7	3
2	5	3	9	4	1	8	6	7
9	7	1	6	5	8	3	2	4
4	8	6	7	3	2	9	5	1

3	9	8	5	1	4	2	7	6
6	1	2	8	3	7	5	9	4
5	4	7	6	2	9	1	3	8
7	2	4	3	9	1	6	8	5
8	5	9	2	7	6	3	4	1
1	6	3	4	8	5	9	2	7
4	3	1	7	6	2	8	5	9
9	8	5	1	4	3	7	6	2
2	7	6	9	5	8	4	1	3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30대 중반 결혼 운 어떤지요 주변서 좋은 기운 몰아줄 것

을씨미살자 남자 77년 06월 13일 음력
여자 79년 01월 06일 음력

Q 두 사람 모두 결혼 적령기가 늦어져서 서로가 신중하게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결혼 운이 어떤지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께서 하루가 다르게 늙으시는것 같아 신경이 쓰입니다. 저희가 부부로써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운이 있는 건가요? 선생님께 꼭 상담 받고 싶습니다.^^

A 년에 지살(地煞)이 있습니다. 장점도 많이 있으나 이는 가가호호를 방문하는 격이라 많은 사람들을 고객으로 확보하는 업에 종사하기도하여 주거의 변동이 심한 편입니다. 분주하여 안정감을 잃었으므로 부부 궁이 온전하지 않음을 시사했는데 여자는 남편을 밀어내기도하여 불화를 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반면반대로 운세가 상승하면 비서나 시녀를 두고 사는 고관대작의 귀한신분과 풍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삶이란 이렇게 교차가 되기도 하니 한발씩 물러나서 원만하게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출발을 해보십시오. 인명은 재천이며 작은 재물은 성실함이 있다면 모아진다 했으니 주변에서 두 분께 좋은 기운을 몰아줄 것이라 여깁니다.

보수낮아 이직·대학원 생각중 노력하면 작은 부자 가능해요

스팅레이여자 여자 84년 11월 30살 음력

Q 매번 이 란에 게재된 사연을 잘 보고 있습니다. 저에게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인생의 방향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현재 마케팅 일에 종사하고 있고요. 능력에 비해 보수가 낮고 제 적성에 맞지 않는 느낌이라 이직이나 약학대학원 입시를 준비할까 고민 중입니다.

A 사주를 비공개를 신청하셨으니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얘기를 적어보겠습니다. 운이 좋을 때는 생각잖게 일이 잘 풀려 나가고 운이 나쁠 때는 틀림없이 될 일도 안 되는 수가 있다. 따지고 보면 운이라는 것도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이름난 큰 부자나 재벌은 운이 계속 좋아야한다. 누구나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부지런히 노력하기만 하면 작은 부자는 될 수 있다. 맹자(孟子)는 그의 저서 孟子에서 하늘이 준 운명은 지리적인 조건만 못하고 지리적 조건은 인화(人和)만 못하다라고 말했다. 사람은 좋은 대인관계에서 일은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동양고전신서 6.명심보감에 적힌 글을 옮겨 보았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4월 14일 (음 3월 15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무심한 자녀가 밉다. **60년생** 큰일을 맡았으면 예행연습도 할 것. **72년생** 협력요청은 받아들이는 게 이롭다. **84년생** 봉사하는 일엔 언제든지 참여하라.

49년생 취중에 남 험담 않도록 조심~. **61년생** 직장인은 변화의 축이 된다. **73년생** 조직의 마당쇠 역할 피하지 말라. **85년생** 그대의 땀은 희망의 불씨가 된다.

50년생 마른 대지에 비가 내린다. **62년생** 배우자와 소통하려면 확실히 양보할 것. **74년생** 기다렸던 기회가 온다. **86년생** 상사에 혼은 나지만 보람찬 하루~.

51년생 벅찬 일은 가족과 연대하라. **63년생** 생각도 못한 공돈이 생긴다. **75년생** 숨은 도우미가 누군지 잘 파악할 것. **87년생** 연인의 따뜻한 배려에 힘이 쏟는다.

52년생 아랫사람 의견 귀담아 들어라. **64년생** 기다리던 자금이 들어와 활기가 넘친다. **76년생** 상식으로 설명이 어려운 일은 도모 말라. **88년생** 궁하면 통하는 법이다.

53년생 어두운 그림자가 곳곳에 비친다. **65년생** 힘들어도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 **77년생** 양손에 떡을 쥔 격이다. **89년생** 필이 꽂히는 이성과 마주하니 가슴이 쿵~.

42년생 생각도 못한 공돈이 생겨 야호~. **54년생** 가는 날이 장날인 격이다. **66년생** 기회가 왔으니 희망의 닻을 올려라. **78년생** 인맥 활용하면 활동무대 넓어진다.

43년생 외출하면 좋은 예우에 유쾌하다. **55년생** 속상해도 감정표현을 잘 하라. **67년생** 고목에 꽃이 활짝 핀 격이다. **79년생** 직장인은 상황판단을 잘 할 것.

44년생 희소식 있으니 기대하라. **56년생** 자영업자는 수익이 늘어난다. **68년생** 누울 자리를 봐 가며 다리 뻗어라. **80년생** 학수고대하던 일이 성사되어 통쾌하다.

45년생 뜻밖의 곳에서 이익이 생긴다. **57년생** 뜻밖의 나쁜 일 조심할 것. **69년생** 애물단지 부동산은 매매 가능성 높다. **81년생** 힘들어도 내일을 생각하며 참으라.

46년생 사람이 싫어도 거부감은 금물~. **58년생** 자녀가 웃음보따리 선물한다. **70년생** 완고한 상사 때문에 부글부글~. **82년생** 잘 나가는 벗 만나면 돈이 보인다.

47년생 통큰 결단에 박수 쏟아진다. **59년생** 귀인이 찾아오니 대접 잘 하라. **71년생** 밝은 얼굴로 맞이하는 배우자가 좋다. **83년생** 상사에게 인정받아 기분 좋은 하루~.

삼성 라이온즈의 임창용이 13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경기 8회초 1사 만루 상황에 등판해 힘차게 공을 뿌리고 있다. /뉴시스

임창용 화려한 컴백쇼

2382일 만에 국내무대 구원승

임창용(38·삼성 라이온즈)이 7년 만의 국내 복귀전에서 극적인 구원승을 거뒀다.

13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홈경기에서 8-8로 맞선 8회초 1사 만루 위기 상황에 마운드를 이어받은 임창용은 1⅔이닝 동안 삼진 2개를 포함해 무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임창용은 루크 스캇에게 희생플라이를 허용했지만 김성현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고 이닝을 끝냈다. 삼성은 8회말 무사 1루에서 박석민의 2루타와 이승엽·박한이의 땅볼로 2점을 보태 10-9로 승부를 뒤집었다.

임창용은 9회 호수비의 도움을 얻어 이명기와 조동화를 범타로 잡았고 최정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고 복귀전을 화려하게 끝냈다. 2007년 10월 5일 롯데전 이후 2382일 만에 국내 경기에 출전한 임창용은 같은 해 9월 9일 LG전 이후 2408일 만에 승리를 따냈다.

일본프로야구에서 '미스터 제로'라는 별명을 얻으며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활약한 임창용은 메이저리그에 도전했다가 올해 시카고 컵스에서 방출돼 연봉 5억원에 삼성으로 돌아왔다.

전매특허인 '뱀직구'는 여전히 위력적이었고, 사이드암과 쓰리쿼터 등 두 가지 투구 스타일을 번갈아 구사하며 타자를 압도했다. 24개의 공을 던졌고 최고 구속은 149km를 찍었다.

삼성 선발 윤성환은 5⅓이닝 퍼펙트 행진을 벌이다 6회 1사 후 정상호에게 홈런을 맞은 후 급격히 무너지며 4점을 내줬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프로야구 전적 13일

■ 잠실

N C	210	001	000	001	5
L G	001	120	000	000	4

△ 승리투수 = 임창민(2승 1패) △ 세이브투수 = 김진성(1승 1패 3세이브) △ 패전투수 = 정찬헌(2패)

■ 대전

넥센	100	200	001	4
한화	000	010	010	2

△ 승리투수 = 하영민(1승) △ 세이브투수 = 손승락(2패 6세이브) △ 패전투수 = 유창식(1패) △ 홈런 = 서건창 1호(9회1점·넥센)

■ 대구

S K	000	001	350	9
삼성	500	011	12X	10

△ 승리투수 = 임창용(1승) △ 패전투수 = 박정배(3승 1패) △ 홈런 = 정상호 1호(6회1점) 최정 2호(8회4점·이상 SK)

■ 광주

롯데	003	101	100	6
KIA	010	101	00X	3

△ 승리투수 = 장원준(2승) △ 세이브투수 = 김성배(3세이브) △ 패전투수 = 임준섭(1승 1패) △ 홈런 = 이범호 2호(2회1점·KIA) 강민호 4호(4회1점) 전준우 1호(7회1점·이상 롯데)

이상민 프로농구 삼성 감독

농구스타 이상민(42·사진)이 서울 삼성의 신임 감독으로 선임됐다.

삼성은 계약 기간 3년에 이상민을 감독으로 발탁했다고 13일 밝혔다. 1월 27일 김동광 전 감독이 물러난 삼성은 이후 코치였던 김상식 감독대행과 이상민 코치 체제로 팀을 꾸려왔다.

연세대와 프로농구 KCC·삼성에서 선수생활을 한 이상민은 2010년 은퇴할 때까지 최고의 포인트 가드로 활약했다. 1992년~2004년 국가대표로 활동했고, 농구대잔치 시절 신인상과 네 차례 베스트5, 프로무대에서 1997~1998시즌부터 2년 연속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와 9시즌 연속 올스타 투표 1위 등 실력과 인기에서 최고의 자리를 지켜왔다.

은퇴 후 2년간 미국에서 지도자 연수를 받은 이상민은 2012년부터 삼성에서 코치로 활동했다.

삼성은 "선이 굵은 리더십을 보유한 이 신임 감독은 농구에 대한 감각과 이해가 뛰어나 우리 구단이 추구하는 도전과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적임자다. 정상의 가치와 의미를 경험을 통해 잘 아는 인물"이라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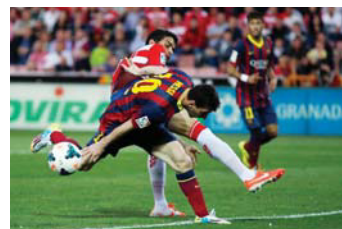
이 신임 감독은 "전통의 농구 명문 서울 삼성 감독에 선임된 것에 큰 자부심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삼성의 정신과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다. 삼성의 이미지에 걸맞은 팀 색깔과 성적을 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순호기자

바르셀로나 42년 만의 악몽

그라나다 원정패…우승 비상

FC바르셀로나가 스페인 프로축구 42년 만에 그라나다 원정에서 패배를 당했다.

바르셀로나는 13일 스페인 그라나다의 누에보 로스 카르메네스에서 열린 2013~2014 프리메라리가 3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1로 패했다. 바르셀로나의 그라나다 원정 패는 1972년 4월 9일 이후 처음이다.

올 시즌 프리메라리가 15위에 머물러있던 그라나다는 전반 16분 터진 야친 브라히미의 골을 끝까지 지키며 대어를 낚았다. 순위는 13위로 올라섰다. 반면 선두 탈환을 노리던 바르셀로나는 불의의 일격을 당하며 25승3무5패(승점 78)로 3위로 내려 앉았다.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는 25승4무4패(승점 79)로 바르셀로나를 앞서 나갔다.

지난 10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0-1로 패해 4강 진출에 실패한 바르셀로나는 지난해 12월1일 이후 올 시즌 두 번째로 두 경기 연속 패배를 당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날 간판 골잡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결장했지만 알메리아를 4-0으로 눌렀다. /유순호기자

이민영 KLPGA 국내 개막전 우승

이민영(22·사진)이 2014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국내 개막전에서 우승했다.

이민영은 13일 제주 서귀포 롯데스카이힐 제주골프장에서 열린 롯데마트 여자오픈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7개를 몰아치며 6언더파 66타를 기록했다. 선두에 1타 뒤진 2위로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한 이민영은 최종 16언더파 272타로 조윤지(23·하이원리조트)와 안시현(30·골든블루)을 2타차로 제치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1·2라운드에서 선두를 지키다 3라운드에서 2위로 밀려났던 이민영은 4라운드 초반부터 맹타를 휘두르며 단독 선두 자리를 되찾았다. 조윤지는 4라운드 전반에만 2타를 줄였고 후반에 3홀 연속 버디를 기록하는 등 이민영을 맹추격했지만 마지막 홀에서 타수를 더 줄이지 못하고 준우승에 그쳤다.

3라운드 단독 선두 안시현은 2004년 MBC·엑스캔버스 여자오픈 이후 10년 만의 우승에 도전했지만 공동 2위(14언더파 274타)로 대회를 마쳤다.

◆ 이에스더 첫 JLPGA 우승

이에스더(28·한국명 이지현)는 13일 일본 효고현 오가와의 하나야시기 골프장에서 열린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스튜디오 앨리스 레이디스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에스더는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최종합계 9언더파 207타로 정상에 올랐다. 2007년 JLPGA 투어에 진출한 이에스더는 세 차례 준우승 이후 첫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유순호기자 suno@

홍명보호, 가나와 마지막 평가전

축구 대표팀(사진)이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아프리카 강호 가나와 최종 평가전을 치른다.

대표팀은 6월 10일 미국 플로리다 인근의 마이애미에서 경기한다. 가나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38위로 56위인 한국보다 18계단이나 순위가 높은 팀이다.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했고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8강까지 진출했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네 차례 우승한 가나는 이번 월드컵에서 독일·포르투갈·미국과 함께 본선 G조에 편성됐다. 조별리그 결과에 따라 한국과 16강에서 만날 가능성도 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다음달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튀니지와 월드컵 출정식을 겸한 친선경기를 벌인 뒤 30일 최종 전지훈련지인 미국 플로리다로 출국한다. 이후 6월 10일 전후로 브라질 이구아수 베이스캠프에 입성한다.

축구협회는 "가나와의 친선 경기가 최종 성사되는 대로 정확한 경기 시간과 장소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유순호기자

프로축구 전적 13일

성남	0	0	상주
전남	2	1	부산

△ 득점 = 안용우②(전4분) 이종호③(전21분·이상 전남) 양동현④(전6분·부산)

인천	0	3	수원

△ 득점 = 김은선①(전12분) 정대세②(후5분) 산토스①(후31분·이상 수원)

tvN 월화드라마

마녀의 연애

팔자극복 로맨스